



# 기독일보



2024년 4월 18일 목요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2525호

## 설교 직전까지 기도한다는 김은호 목사의 '설교론'

DNA미니스트리 '3040 차세대 목회자 멘토링'서 '이렇게 설교하라' 강연 주관적 감정 아닌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 지금 말씀하시고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해야 먼저 설교자 안에 복음에 대한 체험과 확신 필요

지난 15일부터 경기도 가평 오륜빌리지에서 DNA미니스트리(대표 김은호 목사) 주최로 열린 '3040 차세대 목회자 멘토링'의 마지막 날인 17일, 1989년 오륜교회를 개척해 지난해 담임에서 물러나 원로가 된 김은호 목사가 이 자리에 참석한 12명의 30~40대 차세대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어쩌면 설교는 목회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분야일지 모른다. 젊은 목회자들은 선배 목사의 '설교론'에 귀를 기울였다.

김 목사는 우선 자신이 어떻게 주일예배 설교를 준비하는 지에 대해 소개했다. 주일예배가 끝나면 그날 저녁부터 다음주 설교에 대해 생각한다는 김 목사는 월요일에 설교 본문을 정한 뒤 목요일까지는 설교를 거의 완성한다고 한다. 토요일에 마지막 문구 등을 정리하고 실제 그것을 설교해 보는 리허설을 몇 차례 갖는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설교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김 목사는 말했다. 그는 기도를 강조했다.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없으면 설교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김 목사는 성령에 의지해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마침내 주일예배 강단에 오른다고 한다.

이렇게 오랜 기간 설교해 온 김 목사의 설교에 대한 정의는 무엇일까? 그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라며 "설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오늘의 상황에 맞도록 선포해 그 말씀이 각 사람에게 체험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의의 키워드는 '스기'로 된 하나님의 말씀 '스' '성령의 감동' '스' '오늘의 상황' '스' '체험하다' 먼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김 목사는 '설교는 설

교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무리 많아도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김 목사가 강조한 것이 바로 '오늘의 상황'과 '체험'이다. 설교자는 과거가 아닌 바로 오늘의 하나님,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청중은 물론 설교자 자신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목사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고,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설교자는 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자면 우선 설교자부터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김 목사는 말했다. 그는 "목회는 연기가 아니다. 자신 안에 복음에 대한 감각과 기쁨, 평안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연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설교자 안에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어야 그것이 설교를 통해 교인들에게 전해진다"고 했다.

김 목사는 "그렇기에 설교자에게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먼저 그 말씀을 체험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결코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체험과 확신을 갖고 강단에 서야 한다. 설사 체험하지 못했어도 확신만은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목사가 설교에 있어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는 강단에 서기 직전



김은호 목사가 DNA미니스트리 주최로 열린 '3040 차세대 목회자 멘토링'의 마지막 날인 17일 설교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DNA미니스트리 '3040 차세대 목회자 멘토링'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강준민 목사가 DNA미니스트리의 '3040 차세대 목회자 멘토링' 폐회예배에서 설교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까지도 계속 기도한다고 한다. '오직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이 말씀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것이 선포될 때에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교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영혼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 목사가 설교 전 드리는 기도다.

김 목사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그래야 영혼이 살찌고 살아난다. 단순히 재미있는 내용은 그 순간 우리를 즐겁게 하긴

한편, DNA미니스트리의 '3040 차세대 목회자 멘토링'은 주강사로 참여한 김은호 목사와 강준민 목사(LA 새생명교회)가 다음 세대 목회자들과 목회 전반에 대해 나누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각 교단의 추천을 받아 선발된 30~40대 목회자들이 참석했다.

지난해 오륜교회 담임에서 조기 물러나 원로가 된 김은호 목사는 제2기 사역으로 DNA미니스트리를 시작했다. DNA의 D는 다니엘(Daniel), N은 다음세대(Next Generation), A는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다. 다니엘과 같은 다음세대와 3040 목회자들을 세우기 위한 사역이다.

DNA미니스트리는 이번 멘토링 행사에 대해 "한국교회를 위한 비전을 서로 나누고, 3040 차세대 목회자들이 영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고립된 목회'를 벗어나 협력하고 상생하게 하는 '행복한 목회'가 되게 할 목적으로 기획했다"며 "한국교회의 미래와 목회 현장을 함께 고민하고 그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폐회예배에서 강준민 목사는 '열매 맺는 신앙'(요한복음 12:24)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본문의 말씀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이다.

강 목사는 "한 알의 밀 속에서 열매를 보는 것처럼 속에서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에 깃드는 새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비전"이라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풍성한 나라다. 이런 비전을 가져야 목회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리고 밀알이 열매가 되려면 땅에 떨어뜨려야 한다. 바로 겸손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리하신다. 교만한 자는 배우지 않고 겸손한 자는 배운다"며 "밀알이 땅에 떨어져 묻히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기간이 있다. 고난과 성숙의 기간이다. 그러나 그것이 열매이자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 목사 역할,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을까?

'인간이 더 잘할 것'이라는 의견 우세

인공지능(AI)의 발전이 점점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인공지능보다 인간이 그 역할을 더 잘 수행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직업 중 하나로 목사가 꼽혔다.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는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과 관련해 지난해 조사한 결과를 최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래머'에 대해선 78%

가 '인공지능이 더 잘할 것'이라고, 16%가 '인간이 더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자산관리사'는 비율이 각각 73%, 20%, '판사'는 53%, 37%였다. 모두 인공지능이 더 잘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유치원 교사'는 '인공지능이 더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11%, '인간이 더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81%로 후자의 의견이 우세했다. '영화감독'도 비율이 각각 11%, 79%였고, '작가'는 19%, 71%, '목사'는 30%, 53%, '의사'는 44%, 47%였다.

목데연은 "대체로 데이터에 근거해 정확하고 논리적인 판단이 중시되는 직업군에서 인공지능의

역할 우세를 예측했다"며 "반면 인간이 역할을 더 잘 수행할 것으로 본 직업은 주로 창의력, 돌봄 및 공감 능력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필요 여부와 별개로 교회 도입엔 부정적

한편, 목데연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지난해 조사 결과도 소개했는데, 조사 대상 개신교인의 46%가 인공지능(챗GPT 등) 기술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인공지능 기술의 신앙 도움 여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 14%, '도움이 되지 않는다' 37%로 나타났다.

또 출석교회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해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가 56%로 절반 이상이었고, '가끔씩 활용한다' 14%, '자주 활용한다' 5%로 나타났다. '가끔' 또는 '자주' 활용한다는 비율은 19%에 불과해 인공지능 기술의 교회 활용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었다고 목데연은 설명했다.

인공지능 기술을 교회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은 기술'이므로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29%,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교회에 도입하는 것은 반대한다' 22%로 절반(51%)이 필요 여부와 별개로 도입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교회에 필요한 기술'이므로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14%에 그쳤다.

목데연은 "다만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입장이 35%로 높게 나온 것은, 인공지능 기술이 교회에

미칠 영향을 아직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목데연은 "교회가 싫든 좋든 간에,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은 교회 안에서도 일상화될 것이며, 무방비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오는 변화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그 한계와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지혜롭고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공지능 기술이 신앙을 위한 목적이 아닌 수단임을 기억하고, 문명의 이기로서 적극 활용은 하되 보조적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며 "다만, 인공지능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사랑과 헌신의 기독교적 가치를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Harrington Tower

### 차원이 다른 특별한 삶의 시작!

살고 싶은 럭셔리 주거 라이프가 시작됩니다

대법원/대검찰청, 서초역, 교대역, 강남역, 서울고교, 서울고대대학교, 남부터미널역, 서울고교, 예술의전당, 유면산

### 계약과 동시에 시세차익 기대

2호선 교대역·서초역 + 3호선 남부터미널역 도보거리 트리플역세권

### 지금부터의 강남 부동산! 투자하지 말고 소유하라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보이는 지금, 강남 3구의 알짜부동산에 관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높은 가격대의 넓은 공간을 선호하던 투자성향이 수준 높은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리는 생활까지 중심의 새로운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디오페라 서초 해링턴 타워

따져보면 불수록 합리적인 여유가! 2ROOM 3BAY 특화평면

TYPE. 2 (전용면적 58.82㎡)

2.6미터 천정과 +2층 3베이 혁신평면 설계  
소형 그 이상의 가치! 개방감과 공간감을 극대화한 쾌적한 아파트형 주거공간

차원이 다른 레지던스형 컨시어지 서비스 (예비)  
하우스키핑, 핏케어, 조식배달서비스 등 수준이 다른 고품격 레지던스 라이프

트리플 역세권 프리미엄에 개발비전까지  
정보사 이전 부지 개발, 양재R&CD특구 개발 등 강남·서초 특급호재 프리미엄

서초 해링턴타워 현장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18길 40  
세종·아나자산신탁 (주) (주)관악메인 (주)코우드 세호상용중공업(주)

주택전시관 OPEN 02.525.0905

※상기 CG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 외관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상기 CG에 표현된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 색채, 공간조형, 옥상정원, 각종 시설물, 명칭 등 현장면역 및 인허가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회 공동체, 환대·돌봄·주고받음의 매트릭스로 연결돼”

토마스 E. 레이놀즈 교수, 실천신대 불학기 학술제서 강연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이정익)가 지난 15-16일 이틀간 2024년도 불학기 학술제를 개최했다. 행사는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됐으며, 실천신대 석사 원우회박사 원우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둘째 날인 16일에는 구아름 교수(실천신대 설교학)의 진행으로, 토마스 E. 레이놀즈 교수(Thomas E. Reynolds, EMMANUEL, U of T, Canada)가 ‘장애와 교회: 환대, 돌봄, 그리고 소속감’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레이놀즈 교수는 “장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고, 그 사랑에 동참하는 인류 가족 안에서의 신체적 차이에 관한 것”이라며 “그러므로 우리가 장애에 접근하는 방식을 새롭게 상상한다는 것은 우리 사이에 길을 열고 우리 사이의 장벽, 낙인을 찍고 배제하는 장벽, 교회가 되어야 할 모습을 방해하는 장벽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진정으로 소속감을 느끼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고 했다.

이러 “진정한 환대의 경험은 단순히 접근 가능한 출입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공동체 생활에 완전한 참여

자로, 심지어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초대하고, 공동체가 다양한 신체와 존재 방식에 반응하고 공간과 시간의 감각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형태의 접근성을 의미한다”며 “접근성은 공동체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모두를 위한 지속적인 협상으로서의 환대”라고 했다.

또한 “접근성은 서로 다름이 함께 소속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변형적인 소속감을 배양하고 반영한다”며 “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필요에만 집중하는 것에서 자산을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문제에 집중하는 것에서 가능성에 집중하는 것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창의성과 예술적 반응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속감을 키우기 위한 쉬운 방향의 표준화된 목록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람과 상황에 따라 구체적이고 특정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며 “여기서 창의적 반응성이란 모호함과 불확실성 속에서 예상치 못한 놀라움과 실패의 가능성을 가져오는 구체적인 실존의 상황의 혼란스러움에 열려 있는 미지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은 상호 환대에 뿌리를 둔 영성을 바탕으로 놀라움과 불안, 혼란을 가져와 받아들이고, 배우고, 화해하고, 다시 시작하고, 함께 치유하고자 하

는 의지로 나아간다”며 “이 안에서 신앙 공동체는 마치 서로를 환영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을 환영하는 것처럼 급진적인 소속감으로 소환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만남을 통해 받아들이는 개방성은 변형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한 일부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며 다섯 가지 전략을 소개했다.

레이놀즈 교수는 “먼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해결해야 할 문제나 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참여해야 할 가능성으로 기대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는 제가 장애의 ‘예언적 도전’이라고 부르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의 존재는 어디에서 불편함과 혼란을 야기하는가? 이는 우리 사회가 당연하게 여기는 정상성을 비판적으로 반영하는 거울이 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누가 간과되거나 침묵하고, 지위지거나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는가”라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주일 아침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을 살펴볼 때 누가 보이지 않느냐? 이와 같은 질문은 장애인의 유무에 따라 공동체가 어떻게 다른 존재 방식으로 소환되고 있는가라는 더 깊은 질문에 도달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필요를 찾아낸 다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을 투

입한다는 개념을 유지하는 ‘필요 평가’ 언어만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두 번째로 대부분의 공동체는 지배 정책을 만들고, 자원을 할당하고, 사람들을 위한 삶의 기회를 개발하는 하향식 행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자원은 사람들에게 관리된다. 그러나 가능성 접근법은 사람을 자원과 자산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사람을 자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원을 주는 사람으로 대하면 구조가 바뀌고 아래로부터 위로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사람을 자원으로 볼 때, 지역사회는 제도적 보호와 통제보다는 돌봄 관계를 중심으로 가지, 우선순위, 정책을 주문하는 경향이 있다”며 “따라서 장애인은 더 이상 자원을 필요로 하는 책임과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원적 편의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의식을 확장하는 데 동참하는 공동체 창조자가 된다”고 했다.

레이놀즈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현재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현재 있지 않지만 함께하고 싶은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반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반응성을 촉진하기 위한 세 번째는 사람들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여 함께 소속감을 키우는 것이

라며 “즉, 사람들 사이에 연대를 형성하여 서로가 서로의 일부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커뮤니티에 ‘돌봄의 서클’을 만들어 이야기를 나누고 경청하며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소규모 그룹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것은 환대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며,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세계로 들어가 그들의 경험을 증언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독특한 환영 방식을 받아들임으로써 환대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네 번째는 모든 구성원과 함께, 그리고 각 구성원을(각자의 고유성 속에서)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결국 진일 경사로를 만드는 것만으로 접근성이 좋아졌다”고 자축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접근 및 편의 필요를 놓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교회 건물의 외진 뒤편에 경사를 설치하고 설교단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매우 제한적인 의미의 접근성을 나타낸다”며 “접근성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환영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새로운 방문객의 도착을 기대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접근성을 만드는 것은 목적이지만 뿐만 아니라 여정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레이놀즈 교수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주변부로 눈을 돌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처음보다 마지막을 우선순위로 삼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실제로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중요하지 않다고 무시당하는 주변부 사람들은 중심부로 하여금 다른 존재 방식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지혜의 현상이 될 수 있고, 현상 유지를 넘어서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결국, 우리는 규범적이고 지배적인 집단이 특권적인 위치에서 벗어나고 외부인, 일탈자, 가난한 사람들이 갑자기 식탁에서 소속감을 찾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교회라고 부르는 공동체는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고 각자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은사를 나누어 함께 삶을 생산적으로 만들어가는 취약한 소속감의 공동체”라며 “모두가 환대와 돌봄, 주고받음의 매트릭스로 연결되어 있다. 이상적으로는 모든 지체가 서로에게 그리고 서로를 위해 주어지는 은혜로서 교회를 지속적으로 창조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요한 기자

## 기침, 교단 최초로 ‘장애인 주일 기념예배’ 드려

장애인 사역 펼치는 교회·단체·사역자들에게 공로패도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총회장 직무대행 홍석훈 목사, 이하 기침)가 최근 대전 한국침례신학대학교(총장 피영민) 교단기념대강당에서 교단 최초로 ‘2024 침례교 장애인 주일 기념예배’를 드렸다.

기침은 지난해 제113차 정기총회에서 교회가 장애인을 선교의 대상으로 여기며, 장애로 인한 사회적 소외와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단 기념일을 지정하기로 결의했다. 기침 교회들은 지난 14일 ‘2024 침례교 장애인 주일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날 예배에는 신학교 재학생들과 교단 주요 인사, 장애인 사역 단체 목회자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총회 사회부장 이준선 목사(꿈이있는교회)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선 총회 전도부장 최성일 목사(주신교회)가 기도했고 평안말알복지재단 난타팀의 특송이 있은 뒤, 총회장 직무대행 홍석훈 목사(신탄진교회)가 ‘약한 때가 강한 때이다(고후 12:1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홍 목사는 설교를 통해 “사도 바울도 복음의 사도였지만 본인의 아픔은 해결하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문제를 안고 가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파했다”며 “약할 때 더 강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설교 후, 평안말알복지재단 한덕진 목사(사랑하는교회)가 ‘장애인들에게 주신 신앙적 권리’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한



기념예배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침

목사는 “오늘 장애인 단체와 시설에 있는 이들과 함께 뜻깊은 예배의 자리로 모일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 모습이 단순한 행사가 아닌 신학교와 교단, 교회가 장애인을 더 품고 나아가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한 목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그들을 돕는 일을 넘어 함께 하는 공동체의 개념이 필요하다. 오늘 하루만의 관심을 넘어 여전히 불편함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회는 이날 장애인 사역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교회와 단체, 사역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모범교회상은 대전대흥교회 정인택 목사가 받았고, 장애인봉사상은 에베에셀교회 백승중 목사가, 장애극복상은 흥이석 목사(수레바퀴

신교회)가 각각 받았다.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부르심의 응답으로 신학교에 입학한 학부 3명(김준성, 오세찬, 조주희)과 대학원 2명(송원영, 홍기영)에게는 상품권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또한 한국침례신대 사회복지학과가 주관하는 ‘위드 마라톤(With Marathon)’ 참가자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위드마라톤은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들이 한 팀이 되어 함께 5km를 걷는 거북이 마라톤 행사로 오는 5월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어 피영민 총장이 장애인주일 제정 기념에 대해 격려하고 총회 총무 김일엽 목사가 광고한 뒤, 제78대 총회장을 역임한 김인환 목사(함께하는교회)의 축도로 기념예배를 마쳤다. 오후는 아가페회에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김진영 기자

## 애니선교회 대표 이예경 목사 별세... 향년 68세

애니(ANI)선교회 대표로 지난해 8월 심하보 목사에 이어 은평제일교회 담임으로 취임했던 이예경 목사(사진)가 16일 별세했다. 향년 68세. 이 목사는 최근 건강 문제로 안식일을 지내는 중이었다.



고인은 생전 이화여자대학교 문리대학

을 졸업하고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현 건신대학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국제기도위원회 한국대표, 서울 총만교회 담임, 사단법인 한국문화국제교류협회 이사장, 통일한국국민연대 대표를 역임했다.

해외 60여개 국에서 약 250회 선교사역을 했으며, 국내에 3개 교회를 개척했고, 국외에는 150여개 교회를 개척했다.

빈소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입관예배는 가족들만 참석한 가운데 17일 밤 9시에 드리고, 발인예배는 18일 오전 8시, 전국방송예배는 같은 날 오전 10시이다.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

은평제일교회는 담임이었던 이 목사의 별세로 후임이 결정될 때까지 심하보 원로목사가 맡을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사람을 연결하고  
시간을 연결하고  
공간을 연결하는

지금 이 순간도  
LX는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지원-에너지 LX인터네셔널 글로벌스타트업 LX판토스 프리미엄엔터테인먼트 LX하우스 신소재개발 LX MMA 차세대반도체 LX세미콘 우리솔루션 LX글라스

**LX**  
LINK FOR NEXT



# “성경 진리 훼손하는 유신진화론, 신학대서 허용되지 않길”

### 한국창조과학회, '서울신대 유신진화론 관련 사건에 대한 입장' 발표 일부 언론·단체, 본 학회 및 회원들 비난·편향 유신진화론은 신학적 타협, 과학적 사실 아냐 창조과학은 현대문명 이룬 과학 법칙 존중

서울신학대학교(총장 황덕형) 법인이사 회(이사장 백운주)가 '창조신학에 대한 문 제로 박영식 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가운 데, 한국창조과학회가 16일 서울신대 유신진화론 관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 혀다.

앞서 서울신대 측에 따르면 2019년 신 학전문대학원의 안정적인 신입생 유지를 위해 창조과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K 박사를 강사로 임용하고 창조과학 관련 교과목을 대학원 과정에 개설했는데, 박 영식 교수가 창조과학을 '사이비 과학'이라 칭하며 비판하는 글을 SNS에 게재했 다.

한국창조과학회는 입장문에서 “창조는

초과학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한국창조과학회는 하나님에 의한 창조를 기록한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 다”며 “또한, 실험적으로 증명된 과학법칙 과 과학적 사실들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 만,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진화론과 박병우주론 및 이들 이론과 타협한 유신 진화론을 부정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서울신학대학에서 유신진화 론을 강의한 교수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일부 언론과 단체에서 한국창조과학회 및 본 학회 소속의 회원들을 비난하고 편 해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본 학회의 입장 을 밝히는 바”라고 했다.

이들은 “유신진화론은 진화론에 대한

신학적 타협이며, 과학적인 사실이 아냐” 라며 “유신진화론에서는 ‘생물학적 진화 나 박병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라는 신념에 기반해 성경에 기록된 창조 를 진화론과 타협하여 해석함으로써 ‘하 나님이 진화방법으로 창조하셨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진화론은 가설과 추론을 바 탕으로 만들어진 무신론적 신념일 뿐, 실험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니다. 이에 따라 유신진화론 역시 과학적인 사실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신학대학에서 유신진화론을 가르 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성경의 기록에 의해, 6일의 창조와 역사적 아담, 에덴동 산에서 아담의 범죄와 타락, 예수 그리스 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기독교 의 핵심 교리가 있고, 기독교 신학대학은 이 체계 위에서 교육하는 기관”이라고 했 다.

그러면서 “유신론적 진화론은 성경의 기록을 무시하고 세속적 진화론의 권위를

높여 생명의 자연발생 및 오랜 시간 동안 의 죽음을 통한 진화에 의해, 하나의 세포 에서 온갖 동식물과 결국 사람까지 변화 했다는 이론이다. 이런 주장은 본질적으 로 진화론과 타협하여 해석함으로써 ‘하 나님이 진화방법으로 창조하셨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진화론은 가설과 추론을 바 탕으로 만들어진 무신론적 신념일 뿐, 실험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니다. 이에 따라 유신진화론 역시 과학적인 사실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유신진화론은 진화론과 타협해 성경의 기록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며 “창 세기 1장에는 피조세계가 창조주의 말씀 에 따른 창조의 결과임을 분명하게 기록 하고 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반복적 으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능력으로 천지만물이 창조되었으며, 말씀이신 예수 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을 가진 본인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히1:3, 요1:4)고 했다.

이들은 “또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란 말이 일곱 번 기 록되어 있으며, 이는 천지만물이 처음부터

가장 완벽한 질서와 성숙하고 아름다운 상태로 창조되었음을 말한다”며 “즉, 어떤 진화의 과정도 필요 없는 완성된 창조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 으로 창조하셨다는 유신진화론의 해석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유신진화론은 성도들의 창조 신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변질시키는 주 장”이라며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대로 창조된 존재인을 밝히고 있다. 이는 유신진화론의 주장인 인간은 하등한 동 물로부터 고등하게 진화된 존재가 아니 라고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만일 유신진화론의 주장처럼 아담 이전의 수많은 유인원들 중, 한 무리 를 골라서 아담이 되게 하셨다면, 하나님 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과 정 체성은 없어지고, 사람은 동물과 같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유신진화론의 주 장들은 신학적으로 모순이 많으며, 왜곡 된 신앙을 갖게 하여 다음세대들이 창조

주 하나님과 성경을 부정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할 우려가 많다”고 했다.

한국창조과학회는 “창조과학은 현대문 명을 이룬 과학 법칙과 그 방법론을 존중 한다”며 “진화론은 과학적인 검증을 거친 사실인양 선전되고 있지만, 실상 그 핵심 논거는 엄밀한 과학적 근거가 크게 부족 한 편향된 이론에 불과하다. 창조과학회 는 현대문명을 이룬 과학법칙과 관찰되는 자연의 질서를 온전히 인정한다”고 했다.

이들은 “다만 생명이 우연히 발생, 진화 되었고, 우주와 지구의 복잡하고도 정교 한 질서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진화론 의 핵심 가설이 과학의 법칙에 어긋난다 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진화론을 비판한 다”며 “이는 다양한 이론이 공존하는 학 문의 영역에서 타당한 학술 활동이다. 따 라서, 창조과학이 사이비 혹은, 과학적 사 실을 무시하거나 왜곡한다는 주장은 매 우 잘못된 비방”이라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 서울신대 신학부 교수들 “유신진화론, 교단 창조신앙과 불일치”

최근 서울신학대학교(총장 황덕형) 법 인이사회(이사장 백운주)의 박영식 교수 유신진화론 입장 관련 징계 요구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부 교수 25명이 15일 창조신학에 관한 성명 을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신학대학교의 학문적 개방 성과 창조신학과 관련하여 서울신학대학 교의 신학적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며 “하나님의 창 조를 이해하려는 창조신학이 성경의 가르 침을 따르며, 인문, 사회, 자연과학을 포 함하는 다양한 분야의 창조이론들과 상 호 간 대화하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학 문적 자세를 가질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복음주의 웨슬리언 성결신학의 전통에 서 있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고 등교육기관인 서울신학대학교의 교수들 이 성결교회의 신학적 정체성과 신앙고백 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할 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학문적 관점들을 비판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칠 학문적 자유를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한

다”고 했다.

또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이 만 물을 무로부터 창조(creatio ex nihilo)하 시도 아담과 하와를 최초의 인간으로 창 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 여하셨으며 오늘도 자연적 및 초자연적 섭리와 개입을 통해 세계를 다스리고 계 심을 고백하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창 조교리를 창조신학의 중심으로 삼는다” 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연발생적인 진화를 통해서 인간이 출현했다고 주장하는 진화론과, 진화론을 신학에 적용하며 성경의 가르 침에 어긋나는 요소를 포함한 유신진화 론이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고백하는 창 조신앙과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고백 과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다양한 학문적 입장들과 개방 적이며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창조신학 을 포함한 제 신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신학대학교 박영식 교수 징 계위 회부에 대해 한국기독교교양학회(회

장 민경식)가 최근 성명을 발표했다.

학회는 “박영식 교수의 저서 「창조의 신학」(동연, 2018)을 포함한 그의 창조신 학이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단의 창조론 과 배치된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었고, 이 에 2022년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조사위 원회가 열렸다”며 “그러나 조사위원회가 요청하여 박영식 교수가 작성한 논문에서 도 충분히 밝혀졌듯 그의 창조신학은 서울신학대학교와 성결교회의 주요한 목 회자와 신학자인 이명직 목사와 조종남 교수의 가르침을 온전히 계승하고 있다” 고 했다.

이어 “나아가 그의 창조신학은 그가 속 한 대학교와 교단을 넘어 우리나라 다른 개 신교 교단 신학자들의 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며 “그의 신학이 정계의 대상이 된다 면 그것은 오로지 그의 신학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일부가 그의 신학을 왜곡한 결 과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영식 교수의 창조에 관한 신학은 자연세계에 대한 현대과학의 다 양한 해명들에 맞서 창의적이고 비판적으

로 논쟁하면서 하늘과 땅의 창조자를 고 백하는 기독교 창조교의의 핵심을 잘 드 러내고 있다”며 “이것은 과학과 이성을 신 앙의 영역에서 배제하려 했던 과거 교회

역사 속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창조적인 신학을 위한 노력”이라고 했다.

학회는 “서울신학대학교 측에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그간 쌓아왔던 귀 교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교단의 신앙 전 통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소수의 곱 해를 잘못 수용하지 않기를 호소한다”고 했다.

지난 11일 서울신학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박영식)에서도 입장문을 통해 법인 이사회의 박영식 교수 징계 의결 요구는 외부의 소수 목회자가 제시한 관점에 경 도된 것으로서 학문의 자율적인 토론과 연구를 권장해야 할 대학의 의무와 명분 을 저버린 행위이자 명백한 교권 침해임을 밝힌 바 있다.

장요한 기자

## 기감 11개 연회, ‘기독교학교 수호 위한 결의문’ 발표

### 사학법 재개정 등 촉구

최근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감동회장 이철 목사) 각 11개 연회에서 ‘기독교학교 수호 를 위한 결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11개 연회는 ‘기독교 학교는 존속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기독교의 한 국 선교 역사에 무엇보다 기독교 학교를 세움으로써 민족적 인재를 양성함으로 항일 구국 운동과 근대화에 앞장서 옴으 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설의 토대를 마련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 개정된 사립 학교법으로 인해 기독교학교의 교원 임용 권이 제한됐으며,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에 따른 고교학점제의 시행으로 고등학 교에서의 성경 수업과 체질이 제한됐다”

며 “기독교사학의 공영화라는 시대 역행적 모순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제 더 이상 기 독교 학교로서의 건학이념 구현은 물론 이고 학교의 자주적 운영조차 어려운 참 담한 현실에 처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독교 학교의 ‘자주성과 교 육의 선택권’은 헌법적 권리로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에 우리 감리교회는 교육의 자주성과 선택권이 보장되는 새 로운 교육의 시대를 열어줄 것을 유석열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하며 아래 와 같이 결의한다. 우리는 기독교 학교의 건학 정신 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 의한다”고 했다.

11개 연회는 “우리는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탁시킨 현행 사 학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해 제기했던 바, 헌법재판소 가 본 법안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신속하 게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우리는 ‘2025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둔 시점에 기독교 학교의 건학이념 구 현을 위해 성경 수업의 필수 과목 지정 및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체질을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 회가 교육과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 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제22대 총선에 나서는 여야 모든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의 정신 전례 강화를 위하 고, 교육의 자주성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사립학교법 재개정 법안 마련에 적극 나 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 예성 총회, 튀르키예 이재민 돕는 사역자 위로 행사 성료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총회가 튀르 키예 이재민들을 헌신적으로 돕고 있는 현지 사역자들을 위한 회복 캠프를 개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예성은 지난 4월 2 일부터 4일 동안 튀르키예 남부 도시 멜 신을 방문해 사역자 63명과 자녀 20명을 위로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들은 튀르키예 전국 13개 도시 18개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들이다. 예성 총회는 지진 발생 이후 지 금까지 1년 2개월 동안 이재민들을 섬긴

사역자들이 누적된 피로를 호소하고 있 어 위로하러 나선 것이다.

예성 총회는 낮에는 사역자와 가족들 이 자유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찬양과 경배로 영성을 새롭게 다지도록 했다. 이 와 함께 예성 총회는 조일구 총회장을 비 롯해 복원교회 유우열 목사와 김진수 장 로가 설교와 간증 등을 전하는 순서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노형구 기자



행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 ©예성 총회

당신을 변화시키는 움직임  
The Kia EV

기감 11개 연회, ‘기독교학교 수호 위한 결의문’ 발표

예성 총회, 튀르키예 이재민 돕는 사역자 위로 행사 성료



# “거지 막사에 찾아와 기도해 준 목사님의 기도, 28년 지나 응답돼”

### ‘영화 같은 이야기’의 고봉준 목사 간증 집회

“저희 아버지가 68세 때, 어머니가 43세 때, 12명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학교를 그만두고 뱃사람 식모로 일하다, 17살에 상경해 쌀집 배달, 공장, 식당 설거지, 타일 보조공, 기와 공장 보조공, 양아치, 옷, 양말 행상, 노숙자, 거지생활, 노상강도, 폭력배 안 해본 일이 없다.”

“어느날 예배당에 끌려 가 밤새도록 기도했다. 통성기도를 하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 말씀이 소리가 아니라 불로 느껴졌다. 그때, 전국 교도소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겠다고 기도했고, 그 기도대로 됐다.”

저서 ‘영화 같은 이야기, 사마리아 교정 선교회 대표목사, 법무부 교정위원, 교도소 집회 25년간 1,500번이 넘는 설교, 국내외 부흥회와 간증집회로 잘 알려진 고봉준 목사의 LA 지역 부흥회가 지난 4월 10일 샘커뮤니티교회(샘신 목사)를 시작으로, 14일(주일) 주백성교회(김성규 목사)와 웨스턴교회(진건호 목사)에서 진행되었다.

고봉준 목사는 이번 집회 설교에서 “예배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세계관, 가치관이 변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신다. 가치가 바뀌면 진정한 예배자로

바뀐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은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잠 22:4)”며, 예수를 만나게 된 사연과 믿음 후에 그의 삶에 나타난 변화를 간증했다.

그는 12명의 자녀의 막내로 태어나 중학교 때 아버지를 여의고 힘든 삶을 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면 반드시 복된 길은 열린다. 주일성수, 기도, 봉사, 전도와 선교, 십일조와 감사 생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빛나는 법이 있다”고 간증했다.

“저는 교도소 사역을 97년도부터 했다. 사례비를 받고 설교를 한 게 첫 번이 넘고 자비량으로 생선장사를 하면서 13년 동안 연단을 받았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는 훈련을 시키신다. 그때부터는 부흥회를 보내기 시키기 시작해서 외국 부흥회만 4백 여번을 했다”며, “성도가 한 명이라도 부흥회를 한다, 한 명이 나 천명이나 만명이나 똑같이 설교한다”고 했다.

그는 생선장사를 하며 자비량으로 했던 재소자 사역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시간과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니다. 생명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짐승 같은 삶, 인



책 ‘영화 같은 이야기’의 저자 고봉준 목사(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남부지방회 소속 목사)가 LA에서 특별 간증집회를 인도했다. ©주최 측 제공

간 이하의 삶이었다. 하나님이 없으니, 마귀가 제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저를 낳고 83세에 돌아가셨다. 중학교 중퇴를 하고 고기잡이 배에 식모로 취업했다. 17살에 서울에 올라왔다. 구두타이를 하다가 나에게 친한 사람들이 없을까 친구를 찾다가 교도소에 들어갔다. 그 방에서 예배를 드렸다. 긴급조치 9호, 김대중 대통령, 김지하 시인, 서울대학교 정외과 4학년 학생들이 그 안에 있었다. 그때 사형수가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감사한 것인지 이해되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오면 여전히 같은 문제에 봉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 그가 주님을 만난 것은 37년전

오산리 기도원 대성전 밑 지하성전에서였다. 회개 안하러 버티다가 주님을 만났지만 말씀이 없으니 방황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그는 꽃게잡이 배를 타고, 자살 시도도 했다. 그는 그 기간을, “모든 문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려고 일부러 두신 장애물이다. 장애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주신다”라고 해석했다.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오면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직장이 없고 가정이 없었다. 그러다 어떤 생활까지 했다면 거지 생활을 했다. 거지 막사에서 남마주이를 하며 살았다. 그 생활을 하면서 너무 외로워서 25살 때, ‘남마주의와 살아줄 여자가 어디 있겠는가? 술집에 가서 술집 아가씨를 데리고 도망갔다. 거지 막사에 데려가서 83년 11월 25일에 아이를 낳았다. 아이를 바라보는데 흠수저 중에서도 흠수저로 태어난 아들이 불쌍했다. 영락교회 부목사님에게 오셔서 돌에배를 드리 달라고 부탁했다. 비오면 비가 새는, 쓰레기 더미 속에 지은 거지 막사 속에 와서 그분이 오셔서 평평 울며 기도하시며 예배를 드려주셨다. 3개월 동안 씻지도 못한 아이를 위해 기도하셨다. 그 목사님이 빈 평화와 복이 28년 후 응답되었다.”

그는 아이를 호적에 올리지 못해 입양



고봉준 목사의 간증을 듣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주최 측 제공

을 보냈고, 부랑자의 삶은 계속되었고, 출소 후 막사로 들어갔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 경륜과 섭리가 있다. 22살 때 예수님 앞에 서원했는데, 그 생각이 계속 났다. 회개하려 하는데 회개가 안되었다. 30대가 넘어 기도원에 와서 3일동안 기도하는데 불가항력적인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임했다. 거지 막사 앞에 있는 교회에 매일 가서 새벽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는 거지 근성을 뽑아내려고 13년 동안 생선 장사를 하게 하시고 광야 훈련을 시키셨다.”

2011년 3월 아내가 그가 입양을 보낸 아이가 아버지를 찾았다는 전보를 내밀었다. 고봉준 목사는 그때는 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28년만에 편지가 왔다. 사진 한 장과 제가 쓴 책을 동봉합니다. 아버지를 찾았다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다시는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는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행복한 아들 Nicholas Daniel Hartlep, 고모일 드림’ 고모일은 내가 지어준 이름이었다.”

28년 만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쓸 내용이라고는 ‘용서해라’는 말 밖에 쓸 말이 없다. 미네아폴리스에 도착해 아들을 만나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받았다. 고봉준 목사는 아들과 3일을 같이 보내며, 양부, 장인 장모를 모두 만났다. 또, 한국에 온 아들은 돌 예배 때 안수기도해 준 목사님에게 다시 안수기도를 받았다.

그리고 한국 교도소에서 아버지가 설교하는 것을 본 아들은 그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그는 험한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두번째 기회를 주셨고 그는 목회자가 되었다. 그는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봉준 목사는 돌 예배 때 목사님이 한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들이 쓴 책이 29권이다. 아들은 2006년 위노라 주립대를 수석 졸업, 2012년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밀워키 캠퍼스에서 수석 졸업, 메트로 폴리탄 주립대학, 켄터키 주립대학 베레아 칼리지의 로버트 찰스 장학관의 석좌교수 겸 교육학과장을 역임하고 있다.”

고 목사의 간증에 이어 웨스턴교회 진건호 목사가 기도회를 인도했다. 진건호 목사는 웨스턴교회는 시작된지 2개월 정도 되었다며, 앞으로 훌륭한 강사를 초청해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집회는 서정길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주지 한 기자

## 레티놀 4X로, 단 7일만에 속부터 짝 차오르는 밀도탄력

아이오페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

7일 만에 속부터 차올라  
4주 후 어려운 피부 나이

**10.6%**  
볼 탄력 개선

**12.5%**  
모공부위 피부탄력

**12.2%**  
피부 탄력증 개선

RETINOL SUPER BOUNCE SERUM  
|  
RETINOL 4X  
IOPE

오늘부터 7일 후, 달라지는 피부 변화를 경험하세요!

IOPE

구매 문의 | 080-023-5454, 카카오톡 '아이오페 채널' 검색 | 전국 약국, 화장품 및 올리브영 매장  
| \*사용 7일 후, 1인 1회 사용 (1인 1회, 2023.01.25~2023.03.31) (사은품) 5인 이상 30% (사은품) (1인 1회 1회 사용)

## 홀러튼장로교회,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를 기르기 위한 교육토크 콘서트

홀러튼 장로교회(담임 황인철 목사)가 설립 50주년을 맞아 오는 4월 28일 주일 오후 4시, 교회 본당에서 '크리스천 자녀 교육을 위한 교육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홀러튼 장로교회 교육 선교기관인 HONORS ACADEMY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토크 콘서트에서는, SEED 선교회 국제 대표 박신욱 목사(사진)가 한 사람의 크리스천 리더가 세계를 바꾼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ABC통합 교구 유

수연 교육위원과 함께 미국 공교육의 현실을 짚어보고 내 자녀의 세계관, 가치관의 허들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나눈다.

이어 HONORS ACADEMY 교육 디렉터 티모시 리와 함께 실질적인 교육 노하우를 배워본다. HONORS ACADEMY는 20년 이상 동부에서 중고등 학생을 가르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2021년 홀러튼 장로 교회에 에프터 스쿨을 개원했으며, 참된 영향력을 발휘하는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2024년 9월 기독교 사립학교 개교를 앞두고 있다.

HONORS ACADEMY 이치훈 목사는

“신학자 C.S Lewis는 가치 없는 교육은 아무리 유용하다 하여도 인간을 더욱 똑똑한 악마로 만들 뿐이라 했다. 나의 자녀를 하나님을 잘 믿는 크리스천 리더로 길러내고 싶은 학부모님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해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 가길 바란다”며 포부를 밝혔다.

행사 후에는 13상담 부스를 통해 자녀 교육 상담, 전문가의 대담 컨설팅, 변경된 디지털 SAT와 PSAT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저녁식사가 제공될 예정이다. 누구든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김민선 기자

## “무료 안검사 받으세요”

### 비전케어 서부지부 무료 아이캠프 진행

국제의료구호단체 비전케어 미주서부(VCS West-이사장 서영석)가 오는 4월 20일(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LA 한인타운내 월서와 뉴햄프셔에 위치한 LA 총영사관 주차장에서 'LA 사랑의 아이캠프'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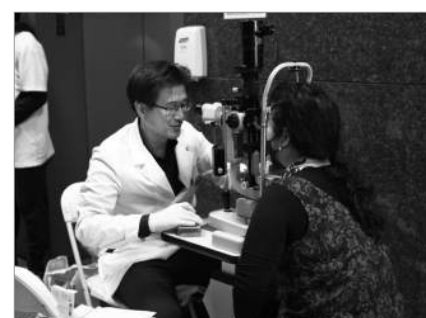
눈질환이 있거나 백내장으로 힘들지만 경제적 형편으로 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한인들은 연령대 상관없이 이날 행사장을 방문하면 무료 안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진 결과 백내장 질환이 심각한 저소득층 또는 무보험자 한인에게는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제공한다.

오픈뱅크와 LA 총영사관, 재외동포청에서 후원하는 이날 행사에는 리사 황 안과전문의, 에드워드 이 안과전문의가 자

원봉사자로 참여해 직접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밖에 비전케어 미주서부 이사들과 유나이티드라이온스클럽 산하 화랑 학생들이 행사에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봉사한다.

비전케어 미주서부의 서영석 이사장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보증을 확대했지만 병원 예약 등이 어려워 검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며 “최근 엘라지 등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검사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비전케어 미주서부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한인 커뮤니티 내 무보험자와 저소득층 한인들을 위해 무료로 안검사 및 백내장 수술을 진행해 왔다. 그 동안 무료 안과 외래진료를 받은 한인은



비전케어 무료 아이캠프 현장의 모습. ©주최 측 제공

900여명에 달하며 100여명에게 무료 백내장수술을 제공했다. 코로나 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과 2021년에도 온라인 아이캠프를 진행해 150여명의 한인 및 비한인에게 무료검사를 제공했으며 10여명의 한인 및 비한인에게 백내장 수술을 제공한 바 있다. 김민선 기자



# 김한요 목사 “코로나 이후 우리가 온전히 회복된 게 아니다”

2019년 11월 중국 우한(武漢)에서 발원한 바이러스(COVID19)가 전세계를 휩쓸자, 대면 예배 및 교회 내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고, 전세계 교회들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례적 상황에 목회를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졌던 때가 불과 몇년 전이다. 교회는 그 위기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답을 찾았고, 야외 예배, 온라인 예배, 주차장 예배 등 목회와 예배를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2023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엔데믹을 선언하고 교회의 예배와 모임은 정상화되는 듯했다. 3년 4개월의 팬데믹이 교회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 교회는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선교의 지평을 확장하는 계기로 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팬데믹이 남기고 간 상처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진단도 있다.

얼마 전 영국 목회자, 선교사님들의 컨퍼런스에 다녀온 김한요 목사(베델교회)는 크리스천들이 이 시대적 교훈을 잊고

있으며, “교회가 팬데믹 이전으로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4월 14일 주일예배에서 <주여, 우리를 고치소서>(역대하 7:13-16)를 주제로 설교한 김 목사는 영국 목회자 컨퍼런스 강사로 영국에 다녀오면서, 유명한 교회가 줄집이 되고 디스코 장이 되었다는 들으며, 이것이 곧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컨퍼런스에 참여한 목사님, ‘이 교회가 줄집이 되었어요.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디스코 장이 되었습니다’라고 하셨다. 한국 장로교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영국에 신앙의 빛을 크게 쬐다. 그런데 그 예배당이 줄집, 바가 되었다. 이게 체감이 안될텐데, 몇 십년 후에 우리 베델교회 건물을 가리키면서, ‘이게 옛날에 교회였는데 줄집으로 바뀌었어, 실내 스케이트장이 되었어’ 그것을 상상해 보라. 그 말도 안되는 일을 눈으로 보고 왔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

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끔 사인을 주신다”고 말했다.

그 사인은, 가뭄, 때뚜기 재앙, 전염병(역대하 7:13)으로 온다. 다른 것은 별로 체험하지 못했죠. 그런데 우리는 전염병을 다 경험했다. 이런 것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사인이다. 팬데믹이라 예배를 못 드린다는 행정명령을 받고 역사의 전후후무한 경험을 했던 때, 제가 이런 칼럼을 썼다. ‘예배당문이 닫혔는데, 만약 하나님이 닫으신 거라면, ‘더이상 예배 드리지 말라고, 주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을 닫은 거라면.’

“교회가 줄집으로 바뀐 것과 비슷하다. 그때 배운 교훈이 크다. 벌써 잊어버리는 게 아닐까. 예배당에 너무 오고 싶어서 주차장에 와서 셀프로 예배를 드렸다. 그랬던 기억이 잊혀져야 한다. 10년 전이 아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염병을 주셨다.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실 때가 있다. 갑자기 잘되던 일



베델한인교회 김한요 목사 @bkc.org

이 실패하고, 잘 길어가다 넘어지고, 잘 못지고. 그게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김한요 목사는 코로나 이후 교회가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교회가 좋고, 교인이 좋고 있다며, 이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이후 우리가 온전히 회복된 게 아닌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코로나

이전에 더 많이 모였다. 아직 회복이 안되었다. 교회가 좋고 있다. 한인교회도 8백교회 문을 닫았고, 매년 미국 1500개 교회가 좋고 있다.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그는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해 영국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된 모리아 교회를 방문한 이야기를 전하며,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에 입국할 당시 웨일즈의 영적인 상황과 그 상황을 뒤집은 한 청년, 회개의 기도에 대해 나눴다.

“1904년에 웨일즈 부흥이 일어났다. 그 당시 이 부흥이 일어나던 당시 상황이 회의론적이고 무신론적 책들이 신학교에서 판을 치고 주일학교에서 성경의 영감과 무오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속죄를 부정하는 일들이 웨일즈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면서 교회의 생명력이 급감하고,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1890년에서 1900년, 10년 사이에 만 2천 여명의 성도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때 이반 로버츠(Evan Roberts)라는 20대 젊은이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를 굴복시키소서(bend me, Lord)’라는 설교가 그의 마음에 남았다. 그는 ‘나를 굴복시키소서’라고 기도했고 엄청난 부흥을 체험하게 된다.”

그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으면 영국교회처럼 될 날이 머지 않다”며 하나님의 사인을 보며 기도해야 함을 강조했다.

주디 한 기자

## 최인혁 목사 콘서트 “예수님 믿는 삶... 불편한 것에서 시작”

### 미주 CBS 창립 3주년 기념 유튜브 방송 개국 기념 콘서트 열려

미주 CBS 창립 3주년 기념 유튜브 방송 개국 기념 최인혁 목사 콘서트 'Just for you'가 12일 오후 7시 30분에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최인혁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바람,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등 8곡의 찬양을 부르면서 중간 중간에 찬양 주제에 맞는 간증을 했다. 또한 라방위십의 찬양과 메시지를 포함한 이야기했다.

최인혁 목사는 “저는 진짜 단순하다. 머리도 안좋은 것 같다. 그렇지만 복받은 것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이다. 예배당에서만 믿지 않고, 바깥에서도 진짜 믿는다. 내 머리로 판단해서 믿으면 이미 늦는다. 시험이 들어오면 머리로 들어오면 안된다. 들어오면 그냥 행하면 된다. 계산이 오면 이미 끝난 것”이라면서 “제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이렇게 묻는다.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쁠 것 같다. 그런데 대답하는 사람이 ‘잘 모르겠네.’ 하면 지옥이다. 왜냐하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기 때문이다. ‘천국에 갈지 안갈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옥간다는 것이다.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천국은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에서 상주시는 분이라고 했다. 상은 어떻게 정해지냐면 이 땅에서 행함에서 정해진다. 잘 살아내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최 목사는 “제가 중학생 때 한국 인구가 3000만명이었는데, 1450만명의 인구가 교회에 출석했었다. 지금은 인구가 5000만명이 넘는데 교회 출석 인구가 400만명이라고 한다. 3/4의 개신교인이 없어진 것이다.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이야기 한다. 행함으로 구원 받을 수 없다. 이것은 틀림없이 맞는 것이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예수를 믿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다시 부활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은 없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미안하지만 그것만큼 강조해야 할 것을 버려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음서를 다 읽으면 ‘기적이 주제가 아니다.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예수의 삶이 주제이다. 종합하면 딱 하나이다. 주님은 ‘착하게 사셨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

바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다.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 몸에서 자동적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 빛이다”고 말했다.

그는 “세상이 교회를 보고 교회에 갈 필요가 없다고 한다. ‘교회를 보니 더 많이 싸우네. 우리보다 더 작은 문제로 싸우네. 저 아줌마 우리 동네에서 욕심 많기로 소문났는데 교회 권사래. 인사 안만 해주기로 소문난 저 아저씨 교회 장로래’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은 끝이다”라면서 “착하지 않으면 구원을 전할 수 없다. 착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착하지 않으면 구원을 논할 수 없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세상보다 착해야 한다.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저는 25세에 헌신했고, 그 날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 불편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선택한 불편을 하나님이 높이셨고, 하나님이 박수치시더라”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불편하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예수님 믿는 삶은 덜 갖고 불편하기로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결단을 끝까지 유지하는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우리 착하게 삽시다”고 강조했다.

한국 CCM의 1세대, CCM계의 작은 거인이라 불리는 최인혁 목사는 총신대학

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예수전도단 강사 및 찬양 인도자의 길을 걸어들었다. 최 목

사는 그동안 월드비전의 친선대사로 활동해 왔으며, 현재 24시간 인터넷 찬양방

송 CBS JOY4U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미주 CBS 창립 3주년 기념 유튜브 방송 개국 기념 최인혁 목사 콘서트 'Just for you' 현장의 모습. ©주최 측 제공



최인혁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K패스-경기

전국 모든 대중교통 다! 경기도민이라 혜택도 더!

# 다되고 더된다

## 페트라대학교 제3회 졸업식 조이풀교회서

### 5월 11일 오전 10시 개최

WPC 세계예수교장로회 산하 페트라 대학교(Petra University, 총장 김정호 목사)의 제3회 졸업식이 2024년 5월 11일 오전 10시에 LA 조이풀교회(866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에서 개최된다.

페트라 대학교는 정통 보수신학과 세계 선교신학을 목표로 2013년 개혁주의 신학의 수호를 위해 캘리포니아에 설립되었으며, 학위 과목으로는 신학 학사, 목회학 석사, 목회학 박사 과정이 있



과거 페트라대학교 제2회 졸업생들이 교수진들과 기념촬영을 하던 모습. 앞줄 중앙이 총장 김정호 목사다. ©페트라대학교

으며, 모든 과정 유학비자(F-1)가 가능하고 수시입학 및 편입이 가능하다. 문의: 213-210-3877, 213-909-3579. 김민선 기자

**지원범위** 전국 모든 대중교통  
● 다만, 시외(고속)버스, KTX, SRT 등 별도 발권 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제외

**지원내용**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한 없이 교통비 실사용액의 일정 비율 환급  
- 19~39세 청년: 매달 교통비의 30% 환급  
- 40세 이상: 매달 교통비의 20% 환급  
- 취약계층(7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등)은 교통비의 최대 53% 환급  
● 6~18세 도민은 연24만원까지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참고)

**신청방법** K-패스 또는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K-패스(www.korea-pass.kr),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 2024년 5월 1일부터 사업시행

**관련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5월월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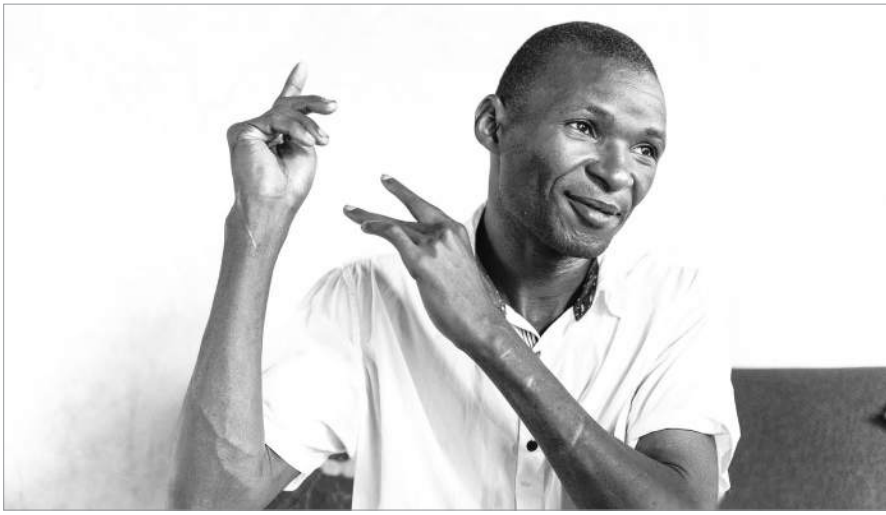
# 철야 기도 중 공격당했으나 목숨 건진 탄자니아 기독교인

한국순교자의소리(한국VOM, 대표 현숙 폴리)는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던 테미스토크레스는 2011년,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혼합된 탄자니아 북부의 한 마을에서 명목상의 무슬림인 데보라와 결혼했다"며 "이 부부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목회자가 집으로 찾아와 다음 주일에 자신의 교회를 방문하도록 초청했고 부부는 동의했다"고 했다.

이후 주일예배에 참석한 테미스토크레스는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설교를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했다고 한다. 이어 6개월간 매일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기로 결단했다고.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났다.

현숙 폴리 대표는 "탄자니아는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테미스토크레스의 마을은 우간다 국경과 가깝고 그 지역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현지 이슬람 사원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인들의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기도 한다"고 했다.

테미스토크레스는 교회 근처 이슬람 사원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을 때, 별들이 사원에 가득 들어오는 바람에 예배가 중단된 적이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일부 무슬림은 교회에서 철야 기도하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사원을 저주했기 때문에 별 때의 침입을 받게 된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테미스토크레스가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정글용 칼로 그를 공격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그러던 중 2014년 10월 어느날, 테미스토크레스가 이슬람에서 개종한 새 신자 디오니즈와 함께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잠깐 졸던 테미스토크레스는 자신의 얼굴 앞에서 빛이 번쩍이는 것을 느꼈다.

이어 특수부대 요원처럼 플래시(flashlight)를 이마에 착용한 남자가 테미스토크레스의 머리를 향해 큰 정글용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철야기도를 하는 기독교인을 공격하기 위해 이슬람 사원에서 한 무리의 남자들이 교회를 찾아온 것이었다.

잠이 덜 깬 테미스토크레스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애쓰다 팔이 베었다. 다수의 부상을 입은 그는, 공격자들 가운데 그의 지인들이 많았다는 사실에도 충격을 받았다.

테미스토크레스는 가까스로 도주했지만 발목 뒷부분도 거의 절단된 상태로 부상을 입었다. 그러면서 다른 남자가 큰 칼로 세 번 더 테미스토크레스를 공격하기도 했다. 그의 친구 디오니즈는 현장에서 숨졌다. 다행히 테미스토크레스는 "절반은 기고 절반은 미끄러지면서 사력을 다해 누군가에게 발견되기를 바라면서



테미스토크레스와 데보라는 주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순교자의 소리에서 지원해준 사업으로 얻은 이익금으로 땅을 사고 교회를 세웠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교회 밖 큰 길가로 나갔다"고 했다.

그러던 중 테미스토크레스는 새벽 한 여섯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경찰은 테미스토크레스가 얼굴을 알아본 공격자 중 한 명을 체포했고, 피문은 옷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또 "그 용의자가 체포된 직후,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들이 테미스토크레스를 위해 음식과 음료를 병원으로 가져왔다. 그러나 그의 아내 데보라는 성령께서 그 주스를 남편에게 주지 말라고 만류하시는 것을 느꼈다"며 "이후 경찰은 주스 병에 독이 들어 있다

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나 현숙 폴리 대표는 "폭행과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던 용의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풀려났고, 테미스토크레스도 자신을 공격했던 사람들을 시내에서 목격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테미스토크레스는 그들을 은혜로 대하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테미스토크레스는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행동했다는 것을 알고 용서했다"고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순교자의소리(VOM) 현장 사역자들은 병실에 누워있는 테미스토크레스를 방문해 의료비용 전액을 지원했다. 부상에서 회복한 테미스토크레스는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유 부지를 교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슬람 사원이 있는 마을을 떠났다.

VOM 현지 사역자는 테미스토크레스가 소규모 양계장을 시작하도록 도움을 줬다. 현숙 폴리 대표는 "양계장 사업은 잘됐고, 이 부부는 사업 수익금으로 토지를 매입해 그 부지에 교회 건물을 지었다"고 했다. 현재 그 교회엔 성인 7명과 어린이 150명이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다.

교회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은 "테미스토크레스는 우리의 참된 목회자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사랑과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도 우리를 사랑합니다"라고 했다.

테미스토크레스는 교회 사역 외에 무슬림 사역을 위한 훈련을 추가로 받기를 소망한다고 VOM에 말했다. 최근 예배에서 테미스토크레스는 강단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기도 했다. 노형구 기자

## “성경이 삶을 변화시켜” 미국 Z세대, 1년 전보다 4% 늘어

최근 여론 조사에서 미국인의 상당수가 성경에 무관심하지만, 성경이 삶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는 청년층의 비율은 지난해보다 증가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미국성서공회(American Bible Society)는 지난 11일 『미국 성경 현황 보고서(State of the Bible USA 2024)』의 첫 번째 장, '오늘날 미국에서의 성경'을 발표했다. 이 장은 미국 내 성경 사용 및 읽기의 빈도와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여 표본을 추출했다.

이 설문 조사는 올해 1월 4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성인 25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성경의 메시지가 내 삶을 변화시켰다는 데 동의하는지 묻자 응답자의 58%는 '다소' 또는 '강력히' 동의했는데, 이는 2023년(57%)에 비해 약간 증가했다.

1965년에서 1980년 사이에 태어난 X

세대 성인 중, 2023년과 2024년에 성경이 자신의 삶에 미친 변화에 대해 '다소' 또는 '강력히' 동의한 비율은 전체 인구의 수치를 일치했다.

1997년 이후 출생한 Z세대의 경우, 성경을 삶의 변화의 원인으로 꼽은 비율이 2023년 50%에서 2024년 54%로 증가했다.

1946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성경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믿는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세대이다. 올해 베이비붐 세대의 69%가 성경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동의했으며, 이는 작년(64%)보다 5%나 증가한 수치이다.

반면, 1981년에서 1996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는 2023년 50%에서 올해 48%로 감소했다. 이 세대는 또한 2023년에 비해 올해 들어 성경을 덜 자주 읽는다(12%)고 응답한 유일한 세대였다. 이 세대의 응답자 중 11%만이 작년

보다 성경을 더 읽는다고 답했다.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15%는 지난 1년 동안 '성경 읽기가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10%는 그 반대라고 답했다. 그중 Z세대는 응답자의 2배 이상(21%)이 지난 1년 동안 성경을 더 자주 읽는다고 답했는데, 이는 성경 독서량이 줄었다는 응답자(9%)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올해 베이비붐 세대와 1946년 이전 출생자의 16%, 그리고 X세대의 15%가 작년보다 성경 읽기가 늘었다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최고령 성인의 10%와 X세대가 성경 읽기가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4년에 성경 사용자의 비율과 숫자는 모두 감소했으며, 이는 성경 현황 보고서 역사상 최저 수준에 이른다. 보고서는 성경 사용자를 교회 예배 이외에도 매년 최소 세 번 이상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2024년에 성경 사용자 수는 9900만

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성경 사용자 비율도 사상 최저 수준인 38%로 하락했다.

지난 1년 동안 '성경 참여자'(Scripture Engaged)로 분류된 미국인의 수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들은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는지, 성경이 하나님과 타인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성경이 그들의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성경 참여자 수는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4700만 명으로, 2020년의 7100만 명과 비교적 상당히 줄었다. 특히 Z세대 성인 중 11%, 밀레니얼 세대 중 12%로, X세대(21%) 및 최고령층(24%)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Z세대(61%)와 밀레니얼 성인(65%) 대부분은 '성경 무관심'(Bible Disengaged) 범주에 속했다. 반면, X세대(58%) 및 최고령층(49%)의 경우 '성경 무관심' 비율이 비교적 낮았다. 유진 김 기자

## 시드니 교회 흥기 난동, 테러 공격으로 규정

10대 가해자 체포, 4명 중상... "극단주의 대중 위협" 동기 확인

시드니 남서부 한 교회에서 발생한 10대 청소년의 흥기 난동 사건이 테러 공격으로 규정되었다. 뉴사우스웨일스(NSW) 경찰은 16일 이번 사건을 "종교적 동기의 테러 공격행위"라고 발표했다.

카렌 웹 NSW 경찰위원회 위원은 "모든 수사 자료를 종합한 결과, 가해자의 행동을 테러 공격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으로 교회 지도자 2명 등 최소 4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범행 동기는 "극단주의에 의한 대중 위협"으로 판단되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압된 가해자는 15세 청소년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청소년을 체포해 구금 중이며, 전날



동영상으로 생중계된 교회 내 칼부림 현장 직전의 모습. 가해자가 설교자를 향해 가고 있다. ©SNS

교회에서 흥기 공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웨이크리 지역 교회 주변에는 시드니 전역에서 경찰들이 대기 출동했고 특수부대도 대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드니에서는 최근 쇼핑물 사건 등 치안 사고가 이어지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홍은혜 기자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

홍보대사 남보라

홍보대사 정준호

### 사장님 지원 플랫폼

# 노란우산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복리효과로 폐업 시 퇴직금 역할
- 지자체 가입장려금 지원
-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http://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

\*취급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중소기업중앙회 준법감리실 심의명 제24-082(2024.3.11~2025.2.28)  
 위 공고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예금저축보안법) 노란우산은 예금저축보안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중앙회법 제120조에 따라 정액 지급에 필요한 채권확보를 위해 매 결산마다 납부공금을 포함한 준법공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합니다. 노란우산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http://www.8899.or.kr)) 또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영적 기근 시대 대비한 '복음설교 시리즈' 발간

### 최요한 명동국제교회 목사 "지금이야말로 예수 복음 붙들 때"



"이 시대도 양식과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닌, 여호와와 말씀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아모스 시대의 영적 기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강단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사라지고 약해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복음의 메시지가 다시 힘 있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멘트 없이 성경말씀으로만 연결해 놓아 누구든지 복음설교의 참고서로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최요한 목사는 복음설교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목사는 "복음은 변함이 없는데 상황은 늘 가변적이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진리를 잘 알아야 한다"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다.

이어 "구약에는 예수님이 숨겨져 있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나타나 있다"며 "구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은 모두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숨겨진 보화를 깨내듯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생애,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다시 오심의 7가지 핵심 주제"라고 덧붙였다. 최 목사는 "그런데도 성경 본문에 충실하게 설교하다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이 없거나, 신학대학원에서 배운 매뉴얼



최요한 목사

대로 지식적, 감성적으로 메시지를 전하지만 진정한 복음이 없는 경우를 많이 본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무엇보다 기술 발달로 지식 평준화가 된 시대에는 오히려 복음 중심의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구글 등 검색하면 뭐든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다양한 직업군의 전문가들이 많다"며 "목사들이 성도들의 전문 분야를 터치할 필요는 없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함을 밝히 전하여 성도들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시대"라고 역설했다.

또한 강단에서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가 사라진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목사는 "세례요한의 첫 번째 목소리가 '회개하라'였다. 그런데 장로교의 칼빈주의에 입각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며, 죄짓고 회개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시스템을 가니, 성도들이 죄 지어도 회개하면 된다는 매너리즘에 빠져버렸다"라며 "구원 받은 자는 버림받을 수 없다는 성도의 견인 교리가 맞지만,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버림받을 수 있음을 알고 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이뤄진다. 설교하는 사람도 동일한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말씀으로 전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심판과 회개 운동에 관한 복음적 설교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목사는 얼마 전부터 성경 66권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66주 연속 설교로 전하고 있다. 최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경의 전체 그림을 보면 설교만큼 쉬운 것이 없다"며 "한국교회와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 오직 예수 복음을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음설교 시리즈"가 목회자들에게는 복음설교를 전하기 위한 참고서로, 평신도들에게는 복음에 대해 확실히 깨닫게 하는 책으로 널리 읽히길 바란다"고 기대를 전했다. 이지희 기자

# 한국위기관리재단 "이스라엘·이란·레바논 방문 자제 요청"

### 외교부, 15일 이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외교부가 중동 지역의 정세 악화로 지난 15일 이란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한국위기관리재단이 우리 국민의 이스라엘, 이란, 레바논 방문 자제를 요청했다. 또한 현지 체류 국민은 해당 국가의 대사관 홈페이지 안전공지지를 확인하고 개인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하자, 이란은 지난 13-14일 이스라엘 본토를 처음으로 공격 공습했다. 이란이 300기가 넘는 무인기(드론), 미사일로 이스라엘에 대규모 보복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군 등은 요격을 99% 막아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란에 재보복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동 정세는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기존 이란 일부 지역에 발령된 여행경보 3단계(적색경보) 효력은 유지되며, 이외 2단계(황색경보) 지역이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곧 2.5단계로 격상됐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외교부 훈령 '여행경보 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단계적으로 긴급

이란 지도, 황색경보(왼쪽 노란색) 지역이 특별여행주의보(오른쪽 빛살무늬) 지역으로 발령됐다. ©한국위기관리재단

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하고,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다.

이스라엘은 현재 가자지구가 4단계(흑색경보) 지역으로, 즉시 대피·철수하거나 여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 외는 3단계 지역으로, 긴급응급이 아닌 한 출국을 권고하고, 여행 예정자는 여행 취소·연기를 권고한다. 3단계 지역은 터키 이라크 국경지역, 시스탄발루체스탄주, 페르시아만 연안 3개 주(후제스탄, 부셰르, 호르모즈간) 등도 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이란 여행 예정인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 연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은 가능한 응급이 아닌 한 안전지역으로 출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지희 기자

### 안보칼럼 10

## 국가보훈과 국립묘지(4)



이범희 목사

장병 제1묘역 왼쪽 제6묘역 입구에 육탄 10용사비가 있다. 1949년 5월 불법으로 점령당한 개성 송악산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포탄을 안고 적의 진지에 뛰어든 서부덕 중위(당시 상사) 등 10용사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곳이다.

제1묘역에도 6.25 때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분들이 잠들어 있고 제2, 제3묘역에는 베트남 참전을 통하여 국군의 현대화와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된 분들이 잠들어 있다. 조국이 부를 때 응답한 사람들, 목숨을 필요로 할 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준 사람들, 조국이 호국의 피를 요구할 때 가까이 그렇게 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서편 묘역이 시작되는 제1묘역에는 문경전투 표지판이 서 있다. 국군 6사단(사

단장 김중오)은 1950년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북한군 제1사단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화령을 통과하는 국도 3호선에 방어선을 구축했다. 국군은 이화령-조령전투와 영덕지구 전투를 통하여 북한군의 남하를 지연시키으로써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얻어주었다.

6.25전쟁 초기에 서부전선에 제1사단(사단장 백선엽)이 있었다면 동부전선에는 제6사단(사단장 김중오)이 있었다. 6사단은 춘천-홍천전투, 동라리 전투, 문경전투, 영천-신녕전투를 통하여 적의 남하를 지연 또는 저지하고 반격전에서 압록강 초산에 가장 먼저 도달하였고, 용문산 전투 등에서 전세를 뒤집는 전과를 거두었다. 또한 6사단은 문경전투 직전 음성의 동라리 전투에서 한 여교사의 기지와 용기로 적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승리를 가져왔다.

제1묘역에는 문경전투에서 전사한 39명의 병사들이 안장되어 있다. 당시 대대장이던 김용배 대령은 1951년 7월 양구전투에서, 박노규 대령은 1951년 3월 영양 일월산 전투에서 전사하여 장군 제1묘역에 나란히 묻혀있다.

1950년 6월 25일 당일 동두천과 포천이 함락되고, 27일 창동과 미아리 방어선이 돌파되고, 28일 새벽 서울 중심부가 점령되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 명령을 하달하였다. 1949년 6월 말 미군은 군사고문단만 남겨두고 모든 병력이 철수하였고, 국군 6만 5천 명에 경비병 수준의 무장과 소수의 해군함정을 지원했다.

그에 비해서 북한군은 소련의 지원으로 공격 위주의 탱크를 비롯한 현대적 장비와 군사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국군 수뇌부는 적의 한강도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시흥지구 전투사령부(사령

관 김홍일)를 편성하여 강남, 흑석, 노랑진, 영등포, 김포에 이르는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한강철교 주변의 흑석동, 노랑진, 여의도는 하루에 수차례 주인이 바뀌는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었다. 6일간의 지연전으로 미 지상군이 진입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었다. 노들나무 공원에 한강전투 전사자 941명의 이름이 전사자명비에 새겨져 있다.

일본에 주둔하던 미 육군 2개 사단이 차례로 투입되었지만, 오산과 대전전투에서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지 못했다. 적은 호남과 경북 북부, 동해안 등 세 방향으로 남하하여 왜관-포항, 마산산까지 장악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은 마산, 왜관을 연결하는 총 240km의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마산에서 왜관까지 120km는 미군이, 왜관에서 영덕까지 120km는 국군이 맡았다. 북한군이 14만 명을 동원하여 8월 15일 부산을 외치며 총공격에 나섰다. 미 공군의 효과적인 폭격과 아군의 결사적인 항전으로 낙동강 교두보를 사수할 수 있었다. 국군사단이 주축이 된 다부동 전투의 승리는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의 결정적 발판이 되었다.

전쟁의 양상은 유엔군의 인천상륙, 수도탈환, 북진, 평양 입성, 압록강 도달, 중공군 개입, 14후퇴와 재반격, 휴전협상과 고지 쟁탈전으로 이어졌다. 1950년 9월 28일 서울을 탈환한 아군은 북진을 계속해서 평양을 점령했다. 그해 10월 24일 추수감사절 공세가 개시되어 미 8군은 압록강으로, 미 10군단은 청진으로 진격하였다. 또 10월 26일 국군 제6사단 제7연대가 압록강 변의 초산에 입성하였다. 하지만 이미 10월 19일부터 중공군 4개 군단 26만 명이 압록강을 건너서 아군을 기다리고 있었다. 후에 병력은 17개 군단 120만 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11월 1일 미그-15기로 무장한 소련공군이 중공전투기로 위장하여 참전하였다. 중공군은 서부 운산으로 5개 군단이, 동부 장진호로 3개 군단이 투입되었다. 아군은 크리스마스 공세를 통해 조기에 차단하려고 했지만, 평양을 내주고 3.8선으로 밀려났다.

한편 북한의 입시수도 강계를 점령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지붕 장진호까지 북상

했던 미 해병1사단은 중공군 9병단 12개 사단 12만 명에게 겹겹이 포위당했다. 미 해병 1사단은 영하 30도가 넘는 혹한 속에서 15일간의 사투로 10만 5천 명의 아군과 피난민 9만 8천 명, 차량 1만 7,500대와 장비 30만 톤을 193대 선박으로 철수 작전에 성공했다. 1950년 12월 31일 중공군의 3차 공세를 저지하지 못한 아군은 1.4후퇴로 서울을 다시 내주고 평택, 원주, 영월, 삼척에 이르는 37도 선으로 물러났다.

전세를 바꾼 것은 1951년 2월 지평리 전투였다. 당시 국군 6사단의 용문산 전투는 적의 춘계 대공세를 물리치고 공세를 전환하여 문산, 금화, 고성전에서 대치하였다. 피의 능선, 편지봉, 단장의 능선, 후크고지, 백마고지, 자격능선, 철의 삼각지, 베티고지 등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한 뼘의 땅을 되찾기 위해서 국군과 세계 15개국의 젊은이가 수없이 목숨을 바쳤다. 마지막 결전은 1953년 7월 13일부터 19일까지의 금강전투였다. <계속>

이범희 목사(6.25역사지역연대 부대표, 6.25역사위원장)

**한국수력원자력주**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APRI400**

미래의 에너지 솔루션  
**소형모듈원자로 (SMR)**

탄소배출 제로  
**대용량 수소 생산**

해안에서 입증된 기술력  
**원전수를 사업확대**

**Energy Up, Tomorrow**

탄소 배출 없는 청정 에너지로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갑니다



# 美 그렉 로리 목사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은 성경적으로 중요한 징조”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하베스트 크리스천벨로우십 교회의 그렉 로리 목사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사람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은 성경적으로 중요한 징조”라고 말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그는 “이 사건이 에스겔서 38장에 설명된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지 말라”면서 “이 시나리오에 하나님 백성의 궁극적인 승리와 열방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는 무대를 마련한다”라고 했다.

로리 목사의 발언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수백대의 드론과 미사일로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중동의 긴장이 고조

되는 가운데 나왔다. 이란혁명수비대는 이번 공습이 지난 4월 초 이스라엘이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이 없다”면서 “이란은 일반적으로 헤즈볼라나 하마스 같은 대리자를 통해 행동했다”고 말했다.

로리 목사는 “성경은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에 고국으로 다시 모일 것이고 이스라엘이 고립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성경은 또 마지막 때에 반유대주의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 북쪽에 서 큰 군대가 그녀를 공격할 것이라고 말

한다. 그리고 그 힘은 마곡으로 인식된다. 많은 학자들은 마곡이 러시아라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아무도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있다. 우리는 마곡과 함께 이스라엘을 향해 진군하는 동맹국 중 하나가 페르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다. 페르시아는 이란이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발생하는 일이 우리가 에스겔 38장에서 읽은 시나리오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확실히 앞으로 다가올 일이다. 이는 게임 체인지이며 큰 일이라고 했다.

로리 목사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고 있

으며,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보낸 미사일의 99%가 격추됐다”고 말하고,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와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라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말씀을 큰 소리로 읽었다.

이어 “이러한 사건들이 펼쳐지는 것을 목격할 때, 우리는 놀라기보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을 인식하며 성경 예언의 진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안토니오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



그렉 로리 목사. ©Harvest

사무총장은 이 사건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자체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금은 긴장을 풀고 긴장을 완화할 때이며 최대한 자제해야 할 때”라면서 ‘가짜지구’ 인도주의적 휴전과 방해 없는 구호품 전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란의 이번 공격에는 300대가 넘는 드론과 미사일이 정교하게 배치됐으며, 이스라엘군은 이를 대규모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요소로 봤다.

전 세계적으로 “이란 정권의 행동이 무모하고 도발적”이라고 비난하는 반응이 있었다. 파리에서 런던에 이르기까지 유럽 지도자들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안정성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 스코틀랜드 교계 지도자들, 조력자살 합법화 반대 선언

스코틀랜드에서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는 제안에 대해 교회 지도자들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연합자유교회 총회장인 앤드류 다운니(Andrew Downie) 목사와 스코틀랜드 자유교회 총회장인 밥 애크로이드(Bob Akroyd) 목사는 자치의회 의원들에게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려는 법안을 지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29명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제안된 법안을 지지하는 것은 도덕적 선을 넘는 것이며 스코틀랜드 사회가 모든 인간 생명의 고유한 가치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스코틀랜드가 윤리적 황무지가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스코틀랜드 의회는 ‘모든 생명은 동등하게 의미가 있다’는 점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조력자살 합법화는 일부 사람들에게 살아가 가치가 없게 됐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우리는 성경 창세기에 표시된 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즉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동등한 사랑을 반영하고 표현하는 형상으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믿는다. 결과적으로 모든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또한 문명화된 사회가 생존하려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가치 있다고 믿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스코틀랜드 의회가 도덕적 선을 넘을 경우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모든 인간 생명의 가치가 사실상 불평등하고 순전히 상대적 사회가 될 것이다. 모든 인간 생명의 가치가 유용성, 의미, 기쁨의 정도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서한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삶을 끝내지 않고 최대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스코틀랜드 전역에 걸쳐 양질의 완화 및 호스피스 치료를 개발해야 한다는 요구로 마무리됐다. 이미경 기자

## 日외무상, 이란·이스라엘과 각각 통화… “강하게 자제 요구”

모두 일본 측 요청으로 전화 회담 성사 이란과 50분간 통화·이스라엘과 25분 통화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이란의 보복 대응으로 중동에서의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은 16일 이란·이스라엘 외교장관과 각각 전화 회담해 자제를 촉구했다.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50분 간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무부 장관과 전화 회담을 실시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란의 이스라엘 영토 직접 공격을 두고 “이번 공격은 현재의 중동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일본으로는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에스컬레이션(긴장고조)을 강하게 비난한다”고 말했다.

또 가미카와 외무상은 현재의 상황이

이란이나 이란 국민은 물론,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다. 긴장이 더 고조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어 자제를 강하게 요구했다.

외무성에 따르면 가미카와 외무상은 아미르압둘라히안 외무장관에게 항행의 자유와 안전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항행의 안전 확보를 요구하는 한편, 가짜지구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통화에서 이란 현지 체류 중인 일본인 보호에 대한 협력도 요청했다.

가미카와 외무상과 아미르압둘라히안 외무장관은 일본과 이란 간에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후 오후 6시 10분

부터 약 25분 간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과도 전화 회담을 가졌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 이상 긴장이 고조되면 제어불능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자제를 촉구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의 일본인 보호를 위한 협력도 요청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라파지구 상황에 대한 우려도 언급하고 인도 지원 활동 가능한 환경이 지속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질 해방 실현을 위해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했다. 지속 가능한 휴전도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한 행동을 요청했다.

양 장관은 계속해서 의사소통 해 나가기로 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의 이번 아미르압둘라히안 외무장관, 카츠 외무장관과의 전화 회담은 모두 일본 측의 요청으로 실시됐다. 김예진 박준호 기자

## 美재무 “앞으로 수일 내 대이란 제재”… 석유 수출 제재 시사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16일(현지 시각)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란과 관련 “앞으로 수일 내에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적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코노믹타임스, CNBC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 은행 춘계 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옐런 장관은 “이란 정권의 악의적이고 불안정한 활동을 계속 방해하기 위한

우리의 제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미국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란의 테러 자금 조달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계속 테이블 위에 올려뒀다”고 설명했다.

옐런 장관은 석유 제재를 검토할 의향을 시사했다.

그는 “분명히 이란은 석유를 계속 수

출하고 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많은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소재 이란 공관 건물을 공습해 최소 7명이 사망했다.

이에 지난 13-14일 이란이 미사일드론(무인기)으로 이스라엘을 공습했다. 오랜 숙적인 이들의 충돌이 제5차 중동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예진 기자

## 美파월, 2% 물가 목표 달성 “확신까지 더 오랜 시간 걸릴 듯”

제품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6일(현지 시각) 2% 물가 목표 달성과 관련 “확신을 얻는 데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CNN 등에 따른

면 파월 의장은 이날 워싱턴DC 월스센터에서 열린 북미 경제 포럼에서 “최근 데이터는 분명히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을 주지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파월 의장은 “현재 노동 시장의 강세와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제한적인 정책이 작동할 시간을 더 허용하고, 데이터와 전개되는 전망이 우리를 이끌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예진 기자



인천환경공단  
ENVIRONMENTAL CORPORATION OF INCHON

# 환경도 도시활

# 민도 짜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안전 지키GO!**  
전국 첫 도시침수 예방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자원 다시쓰GO!**  
공기업 선도 공단  
폐기를 자원순환 100% 달성



**기후변화 맞서GO!**  
2030 온실가스 83% 감축,  
기후변화 선제 대응



**서비스 올리GO!**  
환경교육 인프라 및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조성





행복이 되는  
이 집

이 집의 주소가  
국민의 품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집과 도시를 국민의 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 국민이 바라는 생활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속 만들어 갑니다 ]

[ 임대주택 14만호 운영 ]  
청년과 신혼부부, 은퇴자에게 든든한 내일

[ 아이 키우기 좋은 3기신도시 ]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 긴급주거지원 4만호 ]  
쪽방, 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계층

[ 희망의 시작 뉴홈 ]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 등 나에게 맞는 집



# 한미 “北인권탄압 책임규명 노력 지속” 공조

### 정보접근 개선·납북자 문제 해결위한 협력방안 모색

한국과 미국이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실태에 대한 책임 규명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성 제고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외교부에 따르면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제2차 한미 북한인권협의를 열었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집착이 주민 기본권을 침해해 인권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주민의 정

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부당한 통제 폐지를 촉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납북자·여류자·전정보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도 협의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와 권고 이행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로 했다.

터너 특사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양국 우선순위가 유사하다며 구체적인 조치를 긴밀히 조율해나가기로 제안했다. 양측은 올해 하반기 차기 회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박용국 기자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제2차 한미 북한인권 협의를 개최했다. ©외교부

# 북한인권센터 건립 본격화 전시체험실 구상에 역량 집중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통일부는 18일 건립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센터 설계·시공, 전시 콘텐츠, 전시공간 구성 등에 대한 단계별 자문에 착수한다.

건립자문위원회는 조남승 건축사, 문중훈 교수, 박종원 건축사 등 건축·전시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됐다. 센터 개관까지 SNS 채널을 통해 상시 소통하며 완성도 높은 전시체험실 구상에 힘을 쏟는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최성국 위원장 북한 어린이 실상 만화를 기증하고, 김영호 장관이 이에 수기 메시지를 담아 북한 주민에게 희망을 전한다.

국립북한인권센터는 북한 인권 침해 실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한국판 홀로코스트 박물관'으로, 총사업비 260억 원을 투입해 서울 마곡동에 2026년까지 건립될 계획이다. 연면적 2,400㎡ 규모다. 박용국 기자

김 장관은 “센터가 인권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도록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근상 조형예술가를 예술 특별고문으로 위촉한 바 있다.

한편 위원회는 조남승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업부팀 대표, 문중훈 용인예술과학대 교수, 박종원 멋지오피스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박용희 (주)답이엔씨 본부장, 황환성 (주)이레소방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최희선 중앙대 예술대학원 객원교수, 국성하 연세대 교육대학원 부교수, 차지민 성균관대 하이브리드미래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유숙 전시기획사 칸 대표, 채지훈 기업 아트컨설팅 및 기획전시 전문가, 김예지 아트시(Artsty-미국 미술품 온라인 거래 플랫폼) 한국사업 디렉터, 강동완 동아대 교수, 최성국 탈북민 최초 웹툰 작가, 서두현 국립동일교육원 객원교수 등 총 14명으로 꾸러진다. 박용국 기자

# 이재명 “민생 위기, 정부가 재정 역할해야”

### 회복지원금 13조·소상공인 지원책 등 제안... 국회에 협력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경제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촉구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책 등 긴급 대책을 내놓으며 국민의힘에도 협력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13조원,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완화 1조원 등의 긴급조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적극 재정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저금리 대한대출 확대 ▲소상공인 자금 4000억원 증액 ▲소상공인 예

너지비용 3000억원 지원 ▲서민 금융지원 확대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환율·물가·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가 죽어가고 있다”며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지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 정부가 필요하다. 국민 다수가 필요한 정책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적극 협력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용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 범야권 교섭단체 구성 ‘탄력’ 민주연합 시민회의 참여 가닥

제37대 국회 범야권 공동교섭단체 구성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민사회 대표 2명을 포함, 군소정당 의원들이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참여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다.

17일 취재 결과, 민주연합 시민회의는 전날 회의에서 김운서미화 당선인이 공동교섭단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시민회의 관계자는 “민주당과 통합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조국혁신당 교섭단체에서 활동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 사회민주당 등 군소정당

들도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합류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야권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12석)과 민주연합 시민회의(2석), 진보당(3석), 새로운미래(1석) 등을 모두 합치면 20석으로 교섭단체 요건을 충족한다.

민주연합은 이날 중 해산하고 당선인 당적을 정리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이달 말 범야권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교섭단체 출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박용국 기자

# 대통령실 “박영선·양정철 인선 검토한 바 없다” 해프닝 일단락

### 여야 “정체성 훼손” vs “정치공작” 공방... 안철수 “무난” 평가도

17일 박영선·양정철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기용설이 나오자 정계가 한때 술렁였으나, 대통령실이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하면서 잠시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이날 일부 언론은 박영선 전 중기부 장

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이 인선 후보로 거론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당사자들이 일제히 부인하면서 파문은 가라앉았다.

여당 일각에선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인사”라며 반발했다. 권성동 의원

은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얕은 정치적 수”라고 맹비난했다.

야당은 “야당 파괴 정치공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원 당선인은 “정신 못 차린 행동”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당선인은 “박근혜 정부 탄핵 때와 유사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갑대중 정부 때와 같은 상생과 화합의 모습”이라며 “무난하다”고 평가했다. 권영세 의원도 “폭넓게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박영선·양정철 등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박용국 기자

#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재판 다음 달 시작

### 김수현·김현미 전 실장 등 11명 항방 주축... 공방 예고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고용·소득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22일 시작된다.

1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이 피고인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1년 8월까지 125차례에 걸쳐 서울·인천·경기 지역 주택가격 변동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6월부터 국토부 주택가격 변동률을 사전에 보고받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책 실패 비난을 피하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조작 과정에서 한국부동산원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밖에 김상조 전 실장 등은 2019년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추세를 은폐하려 통계를 왜곡한 혐의도 있다. 홍성표 전 경제수석도 가계소득 통계 기초자료를 불법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뉴시스

# 이란 “이스라엘 조금이라도 행동하면 고통스러운 대응”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위협에 대해 이란 정부가 “조금이라도 행동하면 고통스러운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확전 가능성이 대해서는 경계심도 표했다.

16일(현지시간) 이란 언론에 따르면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전날 카타르 국왕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이란의 이익에 반하는 최소한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엄중하고 광범위하며 고통스러운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단호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에 재보복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한 이란의 첫 공개 경고다. 알리 바게리 카니 외교통장도 “이스라엘의 어떠한 반격에도 순식간에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은혜 기자

프리미어리그 아시아 선수 최초 골든부츠(득점왕) 수상 **손흥민**

**안티푸라민** 콜에어파스 에어로솔 의약품

# 대한민국이 당신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유한양행



# 구독자 552만 무슬림 유튜버, 인천국제공항 인근서 모스크 건축 추진

### 인천 중구청 “개발행위허가 지침에 따라 건축허가 불허 낼 것”

구독자 552만명을 보유한 무슬림 유튜버가 인천 국제공항 인근에 이슬람 사원(모스크) 건축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대구 대현동 모스크 건립 분쟁처럼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무슬림 유튜버 A씨는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에 모스크를 짓기 위한 토지 매매 계약을 완료했다며 “이곳을 기도하는 사원과 한국인 다와(Dawah, 포교)를 위한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의 모든 거리가 아름다운 아잔(Azan, 모스크에서 기도시간을 알리는 소리)으로 채워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모스크 건립을 위해 많은 재정적 후원이 필요하다. 도와달라”면서 자신의 은행계좌 번호까지 적었다.

무슬림 유튜버 A씨가 공개한 토지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모스크 건축을 예정한 곳은 인천 중구 운북동 영종역 인근 238.1㎡ 지역으로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인천국제공항이 있다. 또 운서중, 하늘고, 영종초 금산분교장 등 초·중·고등학교도 근처에 있다.

그는 지난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국에 모스크를 세우고자 후원을 요청하는 영상을 게재하며 치밀한 건립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최근엔 자신이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영상 등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인천 중구청은 현재 유튜버 A씨가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고, 설사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한다 해도 불허할 입장이라고 전했다.

인천 중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무슬림 유튜버 A

씨가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설사 신청이 들어온다 해도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해선 허가가 낼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이어 “종교집회장이 들어서려면 인근에 폭 4m 이상의 도로가 깔려야 하는데, A씨가 매매했다는 토지 인근의 도로 상태가 열악해 2중근린시설인 종교집회장이 들어오기엔 부적합한 곳”이라고 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4항(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따르면, 개발하려는 부지 면적이 5천㎡ 미만의 토지일 경우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한다(부지 면적 1천㎡ 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예외)

중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또 “모스크 건립에 대한 건축허가 사항은 인근 주민들 입장을 들어보는 등 종합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현재 운북동 주



모스크 건립을 진행 중이라는 무슬림 유튜버 ©SNS

소음으로 수면권 등 생활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건립과정에서 주민들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북구청의 행정처리는 주민들 반대 여론에 기름을 붓기도 했다.

이란에서 18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했던 이만석 선교사(4HIM 대표)는 “무슬림 유튜버 A씨가 말하는 아잔은 모스크에서 무슬림들에게 하루 5번 기도시간을 알리는 소리로, 이슬람 문화권에서 거주하는 비무슬림들이 듣기엔 매우 시끄럽다”고 했다.

통상 이슬람 국가의 모스크에서 발생 되는 아잔 음량은 100~200데시벨(dB)로 알려졌다. 100데시벨(dB)은 일반 자동차 경적 음량에 비견된다.

한편, A씨는 이슬람교도였던 지난 2020년 당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내에서 성범죄 사건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고백하고, 피해자와 재결합 합의 및 고소취하서 사본과 사과문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노형구 기자

## 한일 재무장관 “원화·엔화 가치 하락” 공동 우려… 구두개입

###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에 따른 적절 조치 언급

한국과 일본 재무장관이 최근 원화와 엔화 가치 하락에 공동 우려를 표하고,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사실상 양국 공동 구두개입을 했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최상목 한국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이 만나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양국 장관은 강달러 현상으로 원·엔화 가치가 하락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전날 원/달러 환율은 1394.5원, 엔/달러는 154.45엔까지 치솟으며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사실상 양국 공동 구두개입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양국은 경제 발전을 위해 양자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국제여내 이슈에서 공



한일 재무장관 면담 현장의 모습. ©뉴시스

동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로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G20,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등 다자무대에서

도 지속 공조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 개최 예정인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의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내라 기자

## 중동 사태에 원·달러 환율 1400원대 돌파... 국제유가도 출렁

### 정부 “24시간 모니터링하며 과감한 조치 취할 것”

정부가 중동 사태의 국내 경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기록하고 코스피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큰 혼란을 겪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동 사태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실물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시장 변동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시장 불안이 과도해지면 즉각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전날 원·달러 환율이 1400원선을 돌파하자 외환당국이 공식 구두개입에 나섰다. 16일 종가 환율은 1397.3원으로 약 1년 5개월 만에 1400원대에 진입했다. 같은 날 코

스피는 전일 대비 2.28% 급락했다. 국제유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두바이유는 전날보다 0.73달러 오른 90.26달러를 기록했다. 유가 상승이 국내 물가와 금리 인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원유 수급과 공급망 등에 제한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과 대응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환율 약세와 국제유가 상승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내라 기자

## 총선 끝나자 음료·외식 가격인상 ‘도미노’

### 커피빈·파파이스 등 ‘원가부담에 불가피’ 선제적 인상

정부의 물가안정 압박에도 불구하고 식품·외식 업계가 410 총선 이후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서민 물가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파우치 음료인 커피빈, 오가다 가격이 100원씩 인상됐다. 프랜차이즈 차킨 가격도 일제히 올랐다.

파파이스는 15일부터 평균 4% 가격을 인상했다. 굽네치킨도 같은 날 9개 메뉴 가격을 1,900원씩 올렸다. 2년 만의 인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재료비와 인건비, 임대료 등

비용 상승 압박이 커 불가피했다”며 “총선 전까지는 인상을 자제해왔다”고 설명했다.

초콜릿과 조미김 제품 가격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원재료 가격 상승과 환율 상승 여파로 추가 인상 압박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총선 전까지는 눈치를 보느라 가격 인상을 자제해 왔지만 더 이상 인상을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라 도미노 가격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내라 기자

## 경제활동가구 월소득 544만 원... 10%는 부채상환에

### 자산 6억 육박하며 사상 첫 돌파... 부동산 80% 차지

우리나라 경제활동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544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10%인 54만원을 부채 상환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신한은행의 ‘2024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20~64세 경제활동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은 544만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총소득의 50.7%인 276만원을 소비에 지출했으며, 이어 예비자금(20.1%), 저축·투자(19.3%), 부채상환(9.9%) 순이었다. 부채상환액 중 절반 이상이 부동산대출금이었다.

가구 평균 자산 규모는 사상 첫 6억원대인 6억 29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80%가량인 4억8035

만원이 부동산 자산이었다.

반면 가구 평균 금융자산은 8178만원으로 전년보다 5.4% 늘어났지만, 소득 대비 저축 여력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경제활동가구의 64.8%가 부채를 갖고 있으며, 평균 부채 잔액은 1억201만원이었다. 금리 인상 여파로 부채상환액은 9.4% 늘어난 9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내라 기자





## ● 재생자원(합성수지류)을 에너지로!

### 국내 최초 38.4톤 친환경 연속식 열분해 성공




정부·기업·민간의 협력을 통한  
**자원재활용 및 친환경 공공열분해 선순환**

- 2019년 | 연속식 열분해기술 개발 및 전 공정 자동화로 24시간 연속운전 성공
- 2023년 | 국내 최초 단일기기 1일 38.4톤 친환경 연속식 열분해 성공
- 2024년 | 친환경 연속식 열분해설비 설치검사 합격(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가은로 311-43 | [www.revogreenpia.kr](http://www.revogreenpia.kr)



# “스데반 같은 믿음으로 복음 담대히 전파해야”

은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최근 주일예배서 설교



은누리교회 이재훈 목사(사진)가 14일 오전 주일예배서 ‘순교가 선교의 문을 열다’(사도행전 7:54-8:3)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이며 그 복음이 확산되는 동시에 일어난 일이 바로 순교의 역사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첫 번째 순교자는 스테반이었다. 스테반은 비범한 인물이었기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능력을 갖췄기에 순교한 것이 아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이었기에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언을 선택했기에 순교자의 삶을 선택했다”고 했다.

이어 “공회에 잡혀와서 심문을 받고 가장 억울하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음을 이르는 여정 가운데 스테반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였다. 그의 모습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진리를 증거하는 모습에서 나타난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진리 앞에서 담대하다. 이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다. 스테반이 고소당한 이유는 예수님이 고소당한 이유와 같은 신성 모독죄였다. 특히 성전과 율법을 신

성모독 했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하셨던 말씀을 보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인들이 엄청난 종교적 비즈니스를 하는 권력자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었다. 또한, 구약의 율법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선언했을 때 그것은 율법을 중심으로 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 기둥을 흔드는 말씀이었다”고 했다.

이 목사는 “사도행전 7장 전체의 내용은 스테반의 설교가 대부분이다. 오늘 본문은 심문을 당하면서 설교한 내용이다. 심문을 당하는데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 그는 구약의 역사를 강의하듯 설교했다. 구약의 짧은 시간 내에 그 흐름을 관통하는 내용을 알기 원하면 사도행전 7장을 읽으면 된다”며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에 이르는 구약의 물줄기의 핵심은 성전을 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율법을 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함이며 구약의 모든 것이 가라지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스테반은 예수님을 증거하며 담대하게 진리를 증거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자신의 생명, 육신을 지키고 자 노력하지 않으셨고 비굴하지 않으셨고 담대하셨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

으시고 진실을 증거하셨다”며 “54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며 분노하는 이들을 바라보지 않았고 분노하는 자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자기 생명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 눈을 가질 수가 없다. 이기적인 사람은 이상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인제와 계시를 바라볼 수 없다. 스테반은 자신의 죽음에 초연했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휩쓸리지 않았다”고 했다.

이 목사는 “성령으로 충만한 나머지 때로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 이를 악물고 참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고통을 참으신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으며 그 기쁨은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는 기쁨,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이뤄지는 기쁨이다. 스테반은 그것을 보면서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을 보면서 휩쓸리지 않았고 예수님처럼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는 “세상에 가득한 악한 사람들, 거짓에 의지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감정이 때로 솟구치며 그들처럼 변해버릴 수 있다. 나쁜 사람들을 욕하다 보면 우리도 같이 나빠지는 것이다. 스테반은 그것을 뛰어넘었으며 그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며 스테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스테반은 자신의 죽음에서 초연했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휩쓸리지 않았다”고 했다.

이 목사는 “스테반이 순교 직전 했던 마지막 기도는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용서의 기도를 한 것과 같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하실 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도 반복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 가상철언의 기도를 예

수님 옆에 매달렸던 강도가 들었다”며 “마땅히 잘못하고 죄를 짓고 마땅한 형벌을 받는데도 억울하고 못 받는 이들이 그렇게 증오하고 싶어 미워하는 이들에게 저들을 용서하는 저분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놀랍게도 지금도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예수라는 분은 누구신가라는 질문만 던져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다”고 했다.

이어 “용서의 기도는 사람을 구원으로 이끈다.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는 바로 옆에 있던 강도가 구원받는 열매를 맺게 한 것이다. 스테반도 똑같은 용서의 기도를 했다. 예수님과 다르게 스테반은 큰 소리로 기도했다. 그런데 공회에 있던 이들 중 강도처럼 그런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 58절을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나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사울은 청년 바울이다. 이는 바울의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이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본격적인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하며 바울이라는 이름을 택했다.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는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 안에는 ‘스테반 같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이 목사는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은혜로운 선택이었다. 거기에 추가한다면 스테반의 용서의 기

도가 응답되어 그 자리에서 가장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바울을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신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드러지는 용서의 기도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기도는 용서의 기도이다.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이들을 위해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고 있는 것이다. 스테반이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용서의 기도로 누군가가 변화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테반의 순교는 교회에 주어진 핍박의 신호탄이었다.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증거에는 순교가 있었다. 순교자가 나올 때 마다 복음은 더 확산되었다”며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순수한 복음이 우리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다”고 했다.

끝으로 이 목사는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진실 앞에 담대할 수 있다. 자신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자신을 핍박하는 이들에게 용서함으로 바울을 부르신 주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핍박자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이뤄지게 역사하시는 것”이라며 “우리를 통해 복음이 더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축원드린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 김문훈 목사 “복 있는 사람의 특징 네 가지는…”

‘복 있는 사람의 사가지’ 주제로 메시지 전하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사진)가 최근 교회 홈페이지에 ‘복 있는 사람의 사가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목사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필살부른 나무는 딱잎이 다르다”며 “특징이 있고 조건이 다르다고 DNA가 있다. 시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 네 가지(사가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신언서판의 끝인 지혜가 있다”며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중에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 의인의 자손은 배움을 당하거나 벌여먹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위치 선정을 잘 하므로 자기 환경을 아름답게 꾸며서 좋은 생태계를 조성한다”며 “좋은 땅, 옥도운동을 하여 좋은 사람들,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마태효과를 이룬다”고 했다.

그리고 “셋째로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고 아름다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거류지, 유유상종, 통친합락, 친구관계를 형성하여 서로 닦아주고 연합한다”며 “부정적인 면으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긍정적으로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니 말기찬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뿌리를 박으니 공급처가 마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 넷째로 복 있는 사람은 결국, 결과가 좋다”며 “사냥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따라 열매를 맺는다. 농사의 결과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생산성이 있고 가성비가 있고 배가 되고 번식하여 증거와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했다.

이어 “복 있는 사람은 이따리가 마르지 않고 사시사철 늘 푸른 상록의 복의 받는다”며 “해도 해도 지치지 않는 열정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해진다”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해 된다. 나중 축복, 말년의 축복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인복, 다복, 행복, 흥복을 누리게 된다”며 “복 있는 사람은 인도해 가정도 행복해지고 교회도 부흥 되고 사회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고 했다. 장요한 기자

# 조현삼 목사 “꿈, 꿈을 주신 하나님이 이루셔”

조현삼 목사(서울광업교회)가 최근 교회 홈페이지에 ‘꿈을 주신 하나님이 꿈꾸는 사람을 통해 그 꿈을 이루시나’라는 주제의 글을 올렸다.

조 목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을 조금 안다. 물론 하나님은 늘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일하신다”며 “자기를 자전시키고 공전시키는 일 같은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을 파트너 삼아 일하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직접 찾아가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다윗에게 보내 내게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고 했다”며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려는 일의 파트너를 찾아가신다. 예수님도 그러했다. 바닷가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가고, 세관으로 마테를

찾아갔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로 바울을 찾아가셨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이 찾아가 파트너의 반응은 다양하다”며 “모세처럼 나는 못하겠다며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반응하는 파트너도 있다. 자신을 찾아와 선택 가라고 하지 않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며 고민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며 ‘나를 보내소서’라고 한 이사가 같이 반응하는 파트너도 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고 반대 방향으로 길을 떠났던 결국은 그 길을 걷는 파트너도 있다”고 했다.

이어 “하나님은 일을 주시기 전에 먼저, 또는 그 순간, 때에 따라서는 나중이라도 마음을 주신다.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상태를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 일이 하고 싶어진다. 그 일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진다. 그 일을 생각하면 좋고, 하면 보와 요한을 찾아가고, 세관으로 마테를

다. 마치 그 일을 위해 태어난 사람 같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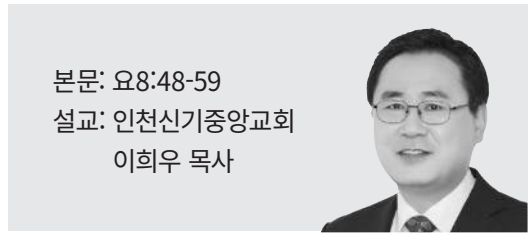
또 “다윗이 언약궤를 찾아올 때, 그때 다윗을 보면 그렇다”며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궤를 찾아오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기뻐 춤을 쳤다. 한껏 고무된 다윗은 백성을 향해 축복했다”고 했다.

조 목사는 “다윗에게 생긴 언약궤를 찾아오는 꿈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 꿈은 이루어졌다. 꿈을 주신 하나님이 꿈꾸는 사람을 통해 그 꿈을 이루셨다”며 “우리가 꿈이 생기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꾸면 된다. 꿈꾸고 그 꿈을 말하는 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다. 꿈은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 이루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신다”고 했다.

아울러 “내가 꾸는 꿈은 내가 이뤄야 한다. 내 수준에 맞춰 꿈꿔야 한다. 꿈을 주신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수준에 맞춰 꿈꿀 수 있다”며 “꿈은 꿈을 주신 하나님이 이루신다. 오늘도 우리는 또 꿈을 꾸는,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머라고 했다. 장요한 기자



# 요한복음(48)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



본문: 요8:48-59  
설교: 인천신기중앙교회 이희우 목사

예수께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하시자 속이 뒤집힌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사마리아 사람’, ‘귀신 들렸다’라는 등 온갖 욕설로 예수님을 공격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너희는 지금 나를 무시하지만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라며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고 선언하신다. 이 선언의 의미를 생각하며 은혜를 누리야 한다.

**◆욕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선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욕했다. ‘뱀놈, 애놈’ 같은 류의 욕, ‘이런 사마리아 사람 같은 자를 봤나’는 표현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욕하며 시비를 건 것, 예수님이 지키시는 유대 종교는 이단적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준수하는 수준이라는 뜻인 것 같다. 이 전에는 없던 표현의 비난이고, 예수님도 이 표현에 대해서는 묵살하신다(49절).

하지만 ‘귀신 들렸다’는 표현에는 반응을 보였다.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기를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49절). 귀신에 들리지 않았다는 반박이다. ‘귀신 들렸다’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 유대인들은 시비를 걸며 이렇게 표현했고(48, 52절), 예수님은 억울하시다는 뜻처럼 이렇게 표현하셨다(49절).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비난한 것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온다.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니까”(7:20).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8:52).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10:20). 공관복음에도 여러 번 나온다(마22:24, 막3:22, 마9:34, 11:18 등). 용서받지 못한 죄와 관련된 증오 받을 자라는 뜻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 비난을 조용히 부인하신다.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한 행위가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의 소행이냐는 말씀이다.

‘귀신 들렸다’, ‘완전 마귀네’ 이런 표현은 반대파를 몰아붙이려고 할 때 흔히 쓰는 표현이다. 정신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너무 비범한 인물이라 이런 말을 듣는다. 또 이 표현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나 자신들의 가득관이 위협당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런 소리를 들었다. 별명이 꿈꾸는 자(Dreamer, 창37:19), 부정적 의미로는 ‘미친놈’이라는 소리였다. 또 이스라엘 심판과 관련된 환상을 보고 정의의 외쳤던 아모스 선지도 그랬다. ‘선견자’(seer)라 불렸지만 ‘미친놈’이란 소리를

다. 그뿐인가? 실제로 미친 짓을 한 선지자가 있다. 에스겔이다. 그는 포위된 예루살렘의 기근이 심함을 보여주기 위해 인분 대신 쇠뿔을 먹는 퍼포먼스까지 했다. 또 왼쪽으로 390일을,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있기도 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의 날수에 맞춰서 누웠던 것이다. 에스겔은 아내가 죽었을 때도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기 위해 슬퍼하거나 울지 않았다(겔24:15-17).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겠나?

영국과 프랑스 백년전쟁의 영웅이었던 잔 다르크(Jeanne d’Arc)도 마찬가지다. 프랑스를 구하라는 계시를 받은 16세의 처녀가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 당시는 똑똑한 여성들이 마녀사냥 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성이면서 동시에 인기가 있었기에 잔 다르크는 양쪽 나라의 권력자들에게 다 미움을 받았다. 결국 종교재판 끝에 이단자, 배교자, 우상숭배자란 죄목으로 화형당했다. “이교의 사탄이 스머든 신체 부위와 같아 다른 부위에 독성이 퍼지기 전에 교화라는 몸체로부터 끊어내야 한다”는 판결과 함께 사형을 당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귀신 들렸다’거나 ‘미쳤다는’ 이 말은 영예로운 말이기도 하다. 일상성이나 평범함을 거부하며 그만큼 열정적으로 살았다는 뜻이다. 열정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enthusiastic, 내 안(en)에 신을 모시고 있는(thus) 상태. 긍정적으로 성령에 취한 상태가 마치 미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는 사도행전이 설명한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행21:7-18) 불광불급(不狂不及), 살면서 한번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제대로, 열정적으로 산 것 아닌가?

**◆아브라함보다 큰 자라는 선언**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귀신 들린 사마리아 사람’ 취급하며 무시하지만 판단하시는 분이 계시다”며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51절), 갑자기 ‘죽음’이라는 단어가 강조점이 있는 말씀을 하신다. 바로 앞 절에서 ‘판단하시는 이가 계신다고 한 것과 연결되는 말씀,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들의 결말이 죽음이라는 무서운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너무 당당하시다. 하나님과의 든든한 관계가 아니라, 자기 영광이나 구하는 자세였다면 결코 이런 당당함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응은 여전하다.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였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맞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나 또 선지자들도 죽였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52-53절). 예수의 당당함에 더 야이 오는 유대인들은 아브라



함도 죽였고, 민족의 영웅들인 예언자들도 죽였는데 죽은 조상들이나 선지자보다 더 크냐고 물은 것이다.

예수님은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체험하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또 알아듣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설명하신 뒤 아브라함의 신앙을 칭찬하며 추가 설명하신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56절). 2천 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미래의 예수님을 보며 즐거워했다는 말씀, 시간과 공간의 벽을 뛰어넘고 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기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았다는 뜻인 것 같다. 갈라디아서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갈 3:16).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크다는 말에 유대인들은 지금 폭발 직전이다. 얼마나 분노했는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육신만 보고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또 묻는다. 왜 50세라는 숫자를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레온 모리스(Leon Lamb Morris)의 주석에 보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전도 초기에 나이가 30세쯤이라 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삼십세쯤 되시니라”(눅3:23).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전도 생애는 3년 정도라 몇 가지 가정을 말했다. 먼저 50이라는 나이는 활발하던 사업이 일단락되는 시기, 요즘은 다르지만 그때부터 늙은이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론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수기 8장 24-25절에 보면 레위인은 이 나이에 직무를 마쳤다. 또 다른 가정은 아브라함이 자간간 지수 세기, 그에 비해 반세기도 안 되는 생애이면서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는 식으로 추측한다. 초대 교부 중 이레니우스(Irenaeus)는 예수님의 선교가 50세에 못 치는 때까지 계속되었을 것이라 추정하기도 했다. 여하튼 예수님이 너무 엄청난 진리를 많이 말씀하셔서 나이 들어 보였을 수도 있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곱슬곱슬 보였을 수도 있다.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신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58절) “아브라함? 개는 저 밑에 있었지” 그런 말씀이다. 아브라함과 비교도 안 된다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미친 사람처럼 불만이다.

그렇다. 여기서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은 미친 분,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거나 둘 중 하나, 예수님은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크다”고 하셨다.

**◆하나님이시라는 선언**  
이 선언은 아브라함보다 큰 자 정도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이다. 54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 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셨다. 유대인의 공분을 산 말씀이다. 그들을 공분시킨 말을 추적해 보면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42절)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하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셨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만 그런가? 피차 대답했을 것이다. 그런데 누가 더 대답할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더 대답하시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51절) 육신의 생명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말은 미친 말임에 틀림없다. 11장에 가면 예수님은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신다. 육신으로 살아 있는 자들을 향하여는 “너희 죽은 자들”(5:25)이라 하셨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산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죽은 자라는 것, 유대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 예수님은 정말 미친 사람 같았을 것이다.

결정적으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58절) 라는 말씀, ‘진실로 진실로’는 이 선언이 이때까지 오고 간 시비와 선을 긋는 아주 중요한 선언이라

는 강조적 표현이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는 과거에 생존했던 위대한 족장보다 앞서 계셨다는, 선재(在先)하신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다시 한 번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인 ‘I am’을 사용해 자신의 신성을 표현하셨다. I was가 아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태어났다고 하지 않고 늘 계신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I am, 그래서 현재형이다. 존재론의 영원성을 밝히신 주장,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자신이 만든 시간 속으로 잠시 들어오셨지만 본질적으로는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밝힌 것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참람죄,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레위기 “여호와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레20:6)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게 진리이고, 거짓말을 할 수 없기에 하신 말씀이지만 유대인들은 레위기 말씀에 입각해 예수님을 돌로 치려한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59절).

본노가 치민 군중들은 즉결 처형을 하려 했다. 법적 절차대로 하기에는 너무 화가 났던 것, 그러나 요한은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고 했다. 겁에 질려 도망치는 것은 아니다. 레온 모리스는 요한의 암시를 ‘하나님의 보호’라고 해석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지키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저들의 눈을 가려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고 봐도 된다는 것, 또 어떤 인격자가 예수님과 군중 사이를 차단해서 예수님이 성전밖으로 나가셨다고 해석해도 된다고 했다.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금 누가 신성모독하고 있나?’ 하는 것이다. 오히려 유대인들 아닌가?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아들에게 신성모독하고 있다. 문제는 그걸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다. 유대인들과 90년대 교인들이 다르지 않다는 것인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 역시 다르지 않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 엘 사다이의 하나님” 늘 그렇게 불렀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묻는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나? 혹시 흥길동처럼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긴 해도 우리 중에도 예수 믿은 지 수년이 지나고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부르지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다. 또 부르는게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취급하는 성도도 있을 것이다.

에베소서에서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엡1:4) 한다. 또 요한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3)고 했다. 우리가 거할 영원한 아버지 집이 있다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끝이 없는 것,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사람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것이다.

**SAMJIN 삼진제약**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쿨다운정**

**30정**

발열

인후통

몸살

근육통

광고심의필: 2022-1618-003300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벤조피타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브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건통(아깨결림), 타박상, 골절통, 염좌통(뱀통증),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항열 및 동열) 만 15세 이상 및 성인: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시를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080-082-1234(수신자부담) www.samjinpharm.co.kr

상품 및 구입문의: 080-082-1234(수신자 부담)



# WCC의 종교다원주의 문서 및 총회(통합) 에큐메니컬위원회 문서 평가(2)



**소기천 교수**  
전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한국교회정론 대표

## 2. 2013년 WCC 부산총회

106회 총회의 에큐메니컬위원회는 한국교회에 유치한 부산총회 이후에 파생된 문제점을 알고 있다. 문제는 부산 총회 이후에 우리 교단의 대응이다. 유인물에 다음의 내용이 있다.

“2013년 부산 WCC 총회 이후, 목회 현장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공격과 일부 교인들이 회교를 떠나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교단의 정체성까지 거론되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급기야 우리 교단이 WCC를 탈퇴하여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제99회 에큐메니컬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WCC 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 9월에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론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단은 WCC 운동에 참여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었고, '힘들고 어려운 과업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교단에서 공격하는 WCC의 신학이

우리의 신학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에 적극 참여하는 이유는 우리 신학이 지향하는 목표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이 긴 인용에 WCC 탈퇴 문제 그리고 WCC의 신학과 목표가 언급되어 있기에 비판적인 관점에서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WCC 탈퇴

이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2021년 10월 강릉노회는 WCC 탈퇴 현의안을 가결하여 107회 총회에 올리기로 했다. 106회 총회에서 류영모 총회장이 '동성애를 옹호하면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직후 통합 69개 노회 중에서 가장 먼저 WCC 탈퇴 현의안을 가결한 것이다.

WCC 부산총회를 유지한 한국교회는 20억 원 부담금 전액을 명성교회에 커다란 짐으로 지우고, WCC 총회가 끝나자마자 명성교회를 공격하는 일에 장신대 임성빈을 비롯한 교수들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선의로 막대한 돈을 혼자서 담당한 명성교회로서는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한국교회에는 명성교회에 감사하기는커녕 구약성경에 계승으로 세 번 언급된 목회 계승을 도리어 세습 반대라는 터무니 없는 스티커를 붙여서 반대하였다. 지금까지 학생들을 선동해서 통합교단을 뒤흔들고 있는 김운용 총장, 박상진, 임희국 교수 등은 세습 반대 교수 모임(세교모)의 공동대표로 아직도 공격적으로 사

과 한마디 없이 명성교회를 반대하고 있다. 그동안 명성교회가 장신대를 위해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낸 헌금을 건축비, 장학금, 장기발전기금 등을 지원해 준 것이 어마어마한데, 불교식 '검기도회'까지 하면서 장신대로부터 명성교회까지 시위하였다. 당시 피켓과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하는 광경을 목격한 사진을 보면 불신자들에게 전도의 기회를 막는 형국이라 안타까운 일이다. 회교를 세우고 살려야 할 신학교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계속하다 보니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교회가 장신대를 떠나고 헌금과 후원을 끊으니, 장신대가 해마다 50억 원의 적자를 보는 안타까운 처지에 몰리지 않겠는가?

에큐메니컬위원회의 보고서에는 부지중에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을 말하는 것 대신에,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그 증거로 3.1운동을 예로 들면서 "비기독교 단체와도 얼마든지 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비난하게 되면, 1919년 삼일운동을 위하여 천도교나 불교도들과 연대하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일을 옮겨 해석할 수 없게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발언이다. 이것은 WCC가 추구하는 JPIC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지상최대의 이념으로 숭배하는 논리적 자기당착에 빠진 모습이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이고 성경이다. 타종교와의 대화를 넘어서 타종교와 협력하고 연대하는

일에는 많은 제한과 제약이 있다. 이 점에서 에큐메니컬위원회가 한 다음의 발언은 위태롭게 여겨진다.

특히 에큐메니컬 선교 신학은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전(JPIC)을 강조한다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에큐메니컬 선교 신학은 인간의 영혼 문제보다 사회정의와 인권 문제를 더욱 강조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고, WCC가 이념에 몰들어서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할 복음의 본질인 인간의 영혼 문제를 등한시하고 사회정의와 인권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KNCC의 이념에 동의하는 오류에 간여했다.

### 2) WCC의 신학과 목표

에큐메니컬위원회의 보고서에는 금주령과 정명준 목사의 글이 나란히 실려 있는데, 거의 논지가 비슷하다. WCC의 신학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을 직접 다루기보다는 WCC를 변호하기에 급급하여 '게는 가제 편'이라는 속담처럼 이미 각본대로 만들어 놓은 것을 두 사람이 영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에큐메니컬위원회가 「바아르 문서」(1990)를 언급하고 있지만, 과연 1990년에 스위스 바아르에서 발표된 바아르 선언문의 원문이나 제대로 확인하고 읽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더 그가 막힌 것은 에큐메니컬위원회가 "WCC 총회는 「바아르 문서를 공식적으로 수용

하지 않았습니까"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모인 바아르에서 채택된 선언문은 곧 WCC의 신학과 목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므로, 현재 WCC는 바아르 선언문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 증거가 바아르 선언문의 서언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 이해인 1991년 호주 캔바라에서 모인 WCC 총회의 기초가 되었으며, 그때 정현경의 초헌제가 거행됨으로써 WCC는 무속종교까지 개회 예배에 끌어들이는 그야말로 종교다원주의의 행보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일부 교단에서 공격하는 WCC의 신학이 우리의 신학이 아니다”라는 선언이 사실이라면, 왜 에큐메니컬위원회는 WCC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두둔할까? 통합 교단이 지향하는 목표가 WCC와 같기 때문이다. 필자는 WCC가 지향하는 목표가 타종교와 대화 및 종교다원주의에 있다고 간주한다. 그럼 WCC의 신학과 목표를 보여주는 문헌은 어느 것일까?

필자가 보기에는 바아르 선언문과 종교 다원주의 정신을 뒷받침하고 있는 2002년 WCC 중앙위원회의 “종교의 다원성과 기독교인의 자기 이해”라는 문서이다. 두 문서는 WCC가 감추고 싶어 하는 문서이고, 에큐메니컬위원회도 극구 변명을 해보았지만, 너무 알려져서 소홀하게 여길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계속>

## 히브리서의 신앙

**김진홍 목사**  
두레수도원



히브리서에는 몇 가지 키워드(Key-Word)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보다 나은'이란 단어가 거듭 등장합니다.

- 1) 보다 나은 이름 (1장 4절)
- 2) 보다 나은 소망 (7장 19절)
- 3) 보다 나은 언약 (7장 22절)
- 4) 보다 나은 직분 (8장 6절)
- 5) 보다 나은 약속 (8장 6절)
- 6) 보다 나은 제물 (9장 23절)
- 7) 보다 나은 산업 (10장 34절)
- 8) 보다 나은 나라 (11장 16절)
- 9) 보다 나은 부활 (11장 35절)
- 10) 보다 나은 피 (12장 24절)

히브리서의 '보다 나은'이란 이 키워드가 히브리서를 이해함에 중요합니다. 히브리서의 주제가 되는 우리들의 대체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제물이나 약속이나 산업

보다 더 나은 이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으로 크리스천이 된 유대-크리스천들을 위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약에 등장하는 어떤 제물, 어떤 제사, 어떤 약속보다 더 나은 것임을 강조하기에 '더 나은'이란 단어를 거듭 사용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의 인물이 74회나 언급됩니다. 그러기에 구약성경에 대한 이해 없이는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히브리서를 어려운 책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면 히브리서는 깊고 넓고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들의 더 나은 제사장인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다음 같이 일러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체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히브리서 4장 14절)

제5복음이라 일컬어지는 히브리서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려는 의도로 쓰여진 글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천들이기에 구약성경에 밝은 분들의 것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구약성경의 인물이 74회나 되풀이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기는 AD 64년에 일어났던 네로 황제 시절의 박해와 AD 85년경에 일어난 도미티안 황제 시절의 박해 중간 즈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박해의 먹구름 앞에 시달리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대체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어떤 박해가 올

지라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주려는 의도에서 쓰여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에게서만 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에 속합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나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라 일러 줍니다.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멜기세덱은 레위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던 때에 그를 영접하고 축복하여 준 제사장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아브람이 돌아올 때에 ...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창세기 14장 17절-19절)

히브리서 7장에서 다음 같이 밝혀 줍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받았나니 ...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히브리서 7장 1절, 6절, 17절)

## 설교자의 고민

**이민규 목사**  
휘드럴웨이제일장로교회



골프의 황제라 불리는 타이거 우즈는 자신에게는 골프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게임이라고 말할 적이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 깊이 들어갈수록 그 속의 복잡한 구조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보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목회자는 평생 설교하며 삽니다.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대언의 직분입니다. 사실 신학생 때 책을 많이 읽고 배워가는 즐거움으로 공부하면서 설교가 제일 쉬우려다 생각했는데, 목회의 현장에 와서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설교가 제일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설교가도 그 이전에 예배자이며 성도이기에 삶으로 전하는 만큼 삶으로 살아 내야 하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이래저래 많이 부족하지만, 최근에 저는 설교의 패권을 조금 바꿨습니다. 나름 쉽게 하려고 노력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려 합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것에 더하여 삶에 적용점을 강조하려 합니다. 변화를 주는 이유는 심방을 다니며 느낀 것들이 많아서입니다. 성도님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합니다.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가를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보면서 설교자가 청중의 환경에 더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무리 화려한 설교를 해도, 예배당을 나설 때 마음에 담고 가지 못한다면 성도님들은 결국 영적 영양실조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마음에 담아낼 수 있는 메시지를 더 쉽고 명확하게 하며,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새벽설교는 맥체인 성경읽기표를 따라, 수요일은 소요리문답을 따라, 금요일은 사편을 따라, 주일은 맥체인 본문을 읽으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새벽기도를 통해 주신 영감을 따라 준비합니다.

가장 먼저 제가 본문에서 은혜받고 받은 은혜를 영적 교환으로 정리하며, 그것이 본문에 근거해서 우리 삶에 어떤 교훈을 주는지 적용합니다. 그 교훈이 분명해져서 삶의 문제에 적용할 때 내 신앙이 변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배우고 있지만, 주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도 새벽마다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저로 말씀 뒤에 서게 하소서!

# 세상에 행복을 **가** 놓다.

## World Top K-water

물로 더 행복한 세상!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감동을 위해 거듭나겠습니다.

환경부 |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 잠복 기리스탄

정재우 목사  
세인트하우스 평택



은 기독교 전사인 아마쿠사 시로로 앞세워 반란을 일으켰다. 3만 7천여 명이 처참하게 전사하고 막부군이 진압에 성공했다. 이 일을 계기로 기리스탄들은 작은 섬들과 오지로 숨어들어 갔다.

대표적인 박해 사건은 당시 교토에서 붙잡은 기리스탄들이 배교하지 않자 엄동설한에 무려 수천 km의 길을 몇 달 동안 여러 도시를 거쳐 끌고 와나가사키에 내려다 보이는 니시자카 언덕에서 십자가에 처형했다. 이 박해 사건은 후일에 순교자로 인정되어 26성인으로 시성되었다. 지금도 나가사키 일본 26성인 기념관은 이들의 신앙을 기리고 있다.

260년이나 계속된 박해에도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순교자가 30여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1873년 금교령이 공식적으로 철폐되었다. 이때에 나가사키에 프리탄 신부에 의해 '천주당'이 세워지자 그동안 가문 대대로 숨어서 신앙을 지켜온 무리가 나타나 자신들의 신분을 밝혔. 이 놀라운 사실이 교황청에 보고되어 유럽 일대는 이를 기적이라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이들을 "기리스탄 재발견"이라고 한다.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유후인에서도 잠복 기리스탄의 흔적이 남아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오지였던 유후인으로 피난 온 기리스탄들

은 마을공동체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결국 발각되어 집단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 그들의 시신이 묻혀있는 초라한 공동묘지가 발견되어 다시금 잠복 기리스탄의 흔적을 찾게 되었다.

잠복 기리스탄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발견한 신문물이나 서양문화로 전해진 왜래 종교에 매료되어서 인가. 아니면 당시 정치와 경제, 사회상에 불만을 가진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있었을까. 아니면 일본인의 심성을 움직이는 탁월한 영성이었을까.

인류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종교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잠복 기리스탄은 유독 일본인들만의 고집스러운 가문의 명예와 전통을 계승하려는 욕구가 더 강렬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종교현상으로 본다면 종교마다 지니고 있는 공통된 종교의식이나 제사와 기도 등 유사한 요소를 지녔기에 가까이 받아들인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대인에게 주는 강렬한 메시지는 종교조차 취향이나 가벼운 교양 생활 정도로 여겨는 현대인의 생활방식에 대해 진정한 신앙이란 삶 자체이며 보존하고 계승할 만한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닌 영혼의 평화를 주는 목숨만큼이나 고귀한 영성생활이란 것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잠적한다"라는 말이 있다. 평소와 달리 일상에서 모습을 감출 때 흔히 사용하는 말이다. 약간의 자신의 입장이 곤란하거나 불리할 때 취하는 행동이다. 대체적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 그러나 긍정적 이미지로 더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규슈 열도는 일본에 처음으로 기독교 선교가 시작된 곳이다. 예수회 선교사 하비에르가 1549년 가고시마에 첫발을 내디뎠으로 일본 선교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치할 때부터 일본 기독교 선교는 일본의 전통문화와 가치를 해치는 종교라며 선교사 추방과 26인을 십자가형으로 처형하는 등 박해를 시작했다.

포르투갈어로 그리스도인을 '기리스탄'으로 부른다. 본격적인 박해가 일어나자 급기야는 시마바라 반에서 10년간이나 박해받던 무리가 잠

# 인생 설명서



성종근 목사  
타코마 반석장교회

교회 인터넷 서비스가 좋지 않아 몇 가지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귀찮지만 시간을 내서 천천히 설명서를 보고 따라서 하니 작동이 됩니다. 요즘은 전자 기기도 새로운 제품이 자주 출시됨으로 새로운 설치 과정이 필요합니다. 참 적응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창조부터 지금까지 인생 사용서는 바뀌지 않았습니. 우리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 인생 사용의 대원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면 잘 되고 번성하리라는 기본약속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돌보심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빠서 제대로 인생의 창조 목적과 중간중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올바른 관계를 확인하지 않음으로 제대로 복된 은혜와 평강을 삶을 놓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창조부터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 사용으로 지치고 힘들 때에도 다시 인생의 문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오면 풍성한 생명을 얻게 준비하셨습니다. 문제는 역시 얼마나 그 말씀을 내 믿음으로 받느냐?입니다.

아프지 않은 인생이 없을 정도로 많이 지치고 상한 심령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창조의 주님이시며 모든 것에서 구원을 이루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왕과 주이십니다. 바쁘고 힘들수록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변하지 않고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 이신 주님을 바라보면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선하심과 긍휼 하심이 큼니다. 주님은 Never stop working for our salvation. 인생 주님이 답입니다.

#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재청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구독문의 02-6085-8166  
광고문의 02-6082-8165  
대표구좌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기사 제보는

독자께서 기사화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02-739-8119 혹은 press@cdaily.co.kr 등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주신 내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社說

# ‘거룩한 방파제’로 동성애 ‘쓰나미’ 막자

우리 사회에 동성애 확산을 막기 위한 교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성 소수자 단체가 개최하는 서울 퀴어축제가 6월 1일로 예정된 가운데 교계는 20만 명이 참가하는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거룩한 방파제’ 측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실행위원회를 열고 올해 국민대회와 관련해 개요를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경기도 파주 오산리 최자실기도원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금요철야기도회를 갖고 학생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합법화 시도 무산 등을 위해 간구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 한국교회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한복판에 새기는 시간이 됐다.

‘거룩한 방파제’란 우리 사회와 가정에 쓰나미처럼 밀어닥친 동성애를 한국교회가 막아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용어다.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아내 우리 사회와 다음 세대를 지키겠다는 뜻으로 하나님께 한국교회에 이를 막아내는 ‘방파제’의 사명을 주셨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매년 서울에서 퀴어축제가 열리는 날, 같은 시간에 장소 인근에서 열려왔다. 두 집회의 성격이 극과 극이고 참가자의 수가 수만 명이나 돼 자칫 예기치 못한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따라다닌다. 만약 물리적 충돌로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거룩한 방파제’라는 의미가 상대에게 호도의 수단이 될 수도 있어 서다.

올해 퀴어축제는 서울 어느 장소에서 열리게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퀴어축제 측은 올해 5월 31일과 6월 1일 서울광장을 쓰겠다고 서울시에 사용신청을 냈으나 최종 불허했다. 서울광장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올해는 같은 날 ‘책 읽는 서울광장’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행사의 연속성을 이유로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가 퀴어축제의 서울광장 개최를 불허한 것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퀴어축제 측은 보수 기독교계의 압력이 이런 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의심하는 눈초리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세훈 시장 때인 지난 2022년에 퀴어축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우려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도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오 시장은 비판과 반발 여론이 거세자 음란물을 판매하는 등 서울광장 사용 조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단서를 달고도 최종 인가했었다. 그런데도 퀴어 주최 측은 음란물 판매 영업행위를 버텼어 했다. 이런 점에서 문제는 서울시가 아닌 주최 측에 있다.

지난해 퀴어축제 측이 신청한 서울광장 사용 승

인이 불허된 데 이어 올해 다시 불허된 것에 외부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는 없다. 퀴어측은 열린광장은 영시민위가 오시장 부임 이후 보수적인 색채로 바뀐 탓을 하고 있는데 이는 보수-진보 편 가르기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시민위가 서울광장 사용 목적을 검토는 할 수 있으나 특정한 단체를 막거나 다른 쪽에 유리한 결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퀴어축제 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서울광장 사용신청을 하는 등 유독 서울광장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건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중심이라는 상징성 때문일 것이다. 서울 한복판에서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동성애를 널리 확산시키고 나아가 동성혼 합법화 등 젠더 이념을 전파하는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2000년대 들어 서울 대학로, 신촌 등지에서 행해진 퀴어축제는 참가자가 수백명에서 천명대에 불과해 크게 주목을 끌지 못했다. 그러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때인 지난 2015년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집회 장소로 내주면서부터 참가자가 급증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 소수자들의 분출 무대인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개인의 성적 취향을 억지로 찾아내 망신주고 벌을 주자는 게 아니지 않나. 백주에 서울 한복판에서 벌거벗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게 표현의 자유와 권리라면 이를 거부할 자유와 권리 또한 시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더구나 성 의식에 있어 미완인 청소년들에게 들이킬 수 없는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부모가 모른 채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런데 교계가 우려하는 건 단지 서울 시내에서 하루 또는 이틀간 벌어지는 기괴한 행위 그 자체가 아니다. 그 뒤에 숨은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동성애자들과 이들을 옹호하는 진영에선 퀴어축제를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전 세계 20여 국이 이런 수순으로 동성혼 합법화라는 최종 목표를 이뤘다는 게 그 증거다. 이들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국회에서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 등을 통과시키는 압력수단으로 활용할 게 뻔하다.

그런 점에서 ‘거룩한 방파제’는 그 말에 담긴 의미대로 한국교회의 시대적 소명일 수 있다. 그런 사명이라면 방향성 못지않게 한국교회 전체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게 중요하다. 22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국회에서 진보세력과 결탁해 무슨 일을 벌일지 알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교회의 단합된 힘과 의지를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줄 필요가 있다.

**예금보험공사**

희망이 담긴  
당신의 예금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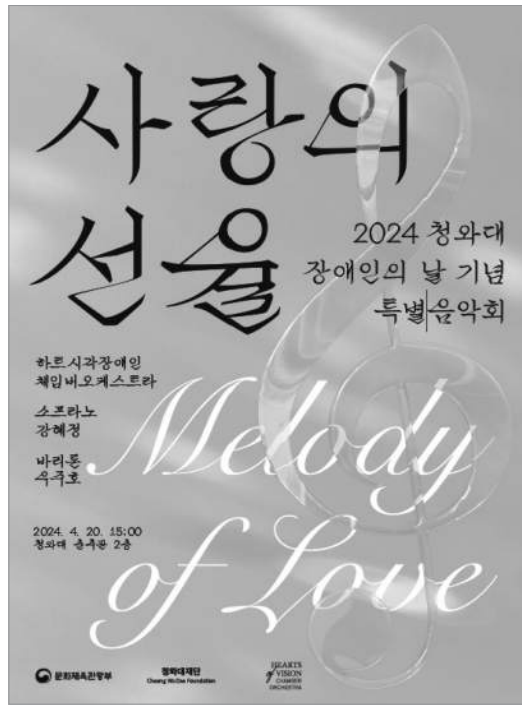


# ‘장애인의 날’, 청와대에서 장애예술인 전시회·음악회 개최한다

~4월 20일까지,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수상작 전시회 개최  
4월 20일,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특별음악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이하 장애총),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와 함께 장애예술인 전시회와 특별음악회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최한다. 이는 청와대 개방 이후 춘추관에서 네 번째로 열리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행사다.  
먼저, 장애총이 주축·주관하고 문체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수상작 전시회 '빛나고 아름답게'가 4월 20일(토)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서예와 동양화, 서양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장애예술인들의 작품 3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올해로 34회차를 맞이한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은 그동안 시각예술 분야의 다양한 장애예술인과 작품을 발굴해 왔다. 장애인의 날 당일인 4월 20일(토) 오후 3시에는 시각장애예술인 연주자 15명과 비장애인 연주자 10명으로 구성된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가 특별음악회 '사랑의 선율을 펼친다. 지난해

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일반 대중들에게 친숙한 영화 삽입곡(OST)과 뮤지컬·오페라 수록곡들을 연주한다. 특히 올해는 소프라노 강혜정, 바리톤 우주호 등 성악가와도 협연해 더욱 다채롭고 감동적인 선율을 선사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를 마련하고 우리나라 최초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 '모두예술극장'을 개관한 데 이어 올해도 다양한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장애예술인 표준전시장 조성(서울스퀘어 별관), 국립 문화시설의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정기 실시 의무화, 우선구매제도 정착을 위한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플랫폼 구축, 장애예술인 지원 예산 확대 등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펼쳐지는 이번 전시회와 특별 음악회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소통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힘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올해도 장애예술인들이 장벽 없이 예술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다은 기자



## “자녀 계획 있다”는 젊은 층 증가했다… 출산율 반등 기대

자녀 계획 의향이 있는 2030세대가 지난 2020년 조사 대비 2023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4월 17일 전국 1만2044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녀를 (더) 가질 계획'에 대하여 30대 27.6%, 30세 미만 15.7%, 순으로 '있다'고 응답하여 2020년 대비 각각 9.4%포인트(p), 6.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없다'고 답한 30대는 44.4%, 30세 미만 19.0% 순으로 나타나 2020년보다 각각 10.3%p, 13.5%p 크게 감소했다.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은 10명 중 8명 이상이 '우리 가족은 서로 돕고 의지하는 편이다'(81.9%), 10명 중 7명 이상이 '우리 가족은 각자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편'(75.0%)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대체로 가족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가사노동은 '아내'가 하는 비율(73.3%)이 높으나, 연령이 낮을수록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가사를 수행하는 비율(20대 56.4%, 30대 44.1%, 40대 25.7%)이 높게 나타나, 연령층이 낮을수록 가사를 평등하게 분담하는 양상을 보였다.  
배우자와 하루 평균 대화시간은 2020년 조사와 비교하여 '전혀 없음'과 '30분 미만'은 감소하고, '30분에서 2시간 미만'은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대화시간이 늘어났다.  
전반적인 부부관계 만족도 역시 '만족'(대체로만족+매우만족)한다는 비율(66.2%)이 9.2%p 높아져 배우자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20대는 입산·출산·자녀양육 관련 교육·상담, 30대는 아이 돌봄서비스, 40~50대는 가족관계 상담, 60대 이상은 노부모 부양가족 지원 수요가 제일 높아, 연령에 따라 뚜렷하게 차이를 보였다.  
주택 안정 지원(37.9%), 돌봄 서비스 지원(13.9%), 심리·정서적 지원(10.3%), 건강증진 지원(10.1%), 가사서비스 지원(10.1%) 순으로 정책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돌봄서비스 지원', '건강 증진 지원'을 꼽은 비율이 높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주택 안정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가족 지원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유형별 특성에 맞는 가족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전국 가족센터 기능을 확장하여 1인 가구, 노부모 부양가족 등 도움이 필요한 모든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 가족 보듬사업'을 시행한다.  
맞벌이가정 등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11만 가구까지 확대하고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추가 지원(10%)하며, 출장·야근 등으로 갑자기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는 긴급·단시간 돌봄도 제공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일·생활 균형 지원 등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가족친화 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우리 기자

##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1인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4월 26까지 참여자 모집, 최종 800명 선발  
청년 역량강화 및 취·창업 기회 확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청년들의 도전을 지원하는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참여자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진로와 관련해 청년이 구상한 프로젝트를 제안하면 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역량향상 프로그램, 멘토링과 1인 최대 500만원의 프로젝트 지원금을 지원한다.  
올해 최종 선발 인원은 800명으로 경기도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해 향후 취·창업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지난해 600명보다 확대됐다. 더 많은 청년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현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우선 모집을 통해 880명을 선발해 필수 참여 프로그램인 '탐색과 발견' 종료 후, 참여도, 프로젝트 계획서 등을 중간 평가해 최종 프로젝트 참여자 800명을 확정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39세 청년(1984년~2005년생)으

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이라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해 최대 1982년생까지 지원할 수 있다.  
교육기간 필수과정인 '탐색과 발견', '중간평가'와 '도전과 변화' 등 집합교육에 필수 참여 가능한 청년이라면 취·창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에 지원 가능한 총 19개 분야는 ▲디자인 ▲교육 ▲IT/SW ▲영화/드라마 ▲음악 ▲음식 ▲여행 ▲방송 ▲미용/패션 ▲AI/로봇 ▲사회복지 ▲스포츠 ▲환경/생태 ▲동물 ▲게임 ▲공학 ▲법/수사 ▲의료/바이오 ▲금융 등이다.  
프로젝트 구성 방식은 팀과 개인 중 선택해 지원 가능하며, 팀의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재단은 특히 원활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역량향상 교육, 직무적성 검사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26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프로젝트 계획서를 별도 제출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신청 시 요약 형식으로 제출하고 평가 대상이 될 프로젝트 계획서는 역량교육에서 함께 구체화할 예정이다.



2024년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포스터 ©경기도일자리재단

이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광역사업팀(031-270-9768)로 우선 문의도 가능하다. 이우리 기자

성명서, 칼럼, 논평 등 언론에 게재된 송암 권태진 목사의 글 모음집  
대한민국 현대사 30년을 정리한 '역사 교과서'이자 '역사 지침서'

최신간 NEW

광야에서 희망을 외치다

권태진 지음 | 170x240mm(양장) | 400쪽 | 33,000원 | 성빛출판사 | 2023년 10월 15일 발간

광야에서 희망을 외치다

저자 : 송암(松巖) 권태진

저자는 1978년 10월 15일 천막 하나로 교회를 세운 군포계일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설교들과 신명찬 가족이 된 그의 사역을 보고 사람들은 아비목회라 불렀고 끝없는 사랑의 돌봄을 어미목회라 칭했다. 그는 한국 교회의 본질 회복과 연합 운동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며 심장으로 낮아지는 목회자이다. 예장 합신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등 총회와 연합기구의 수장으로 지역, 교단, 교파를 초월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되는 운동을 계속해왔고 일남전(영호부대) 참전용사로서 피 끓는 애국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는 '송암'이란 호를 가진 시인이기도 하다. 1994년 문예사조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으며 국제PEN회원, 한국문인협회원으로 시, 열두 권의 설교집, 열세 권의 에세이 등 총 44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한국전송가게발전의 이사장으로서 찬송 작사가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오직 예수님이 희망'을 삶으로 전하며 쉬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 달려간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 BIRMINGHAM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D. MIN.), LOUISIANA BAPTIST UNIVERSITY 명예철학박사(Ph.D.),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사단법인 성명리의 이사장이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96회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30대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89대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다.



성경과 함께 읽는

## 성경 1장 칼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행하는 성경여행서!



성경의 모든 장을 칼럼으로 저술했습니다. 성경 내용이 이해되고 계속 읽혀집니다. 정통 신학과 교리에 충실하고 적용이 탁월합니다. 경건을 갈망하는 크리스천이 기다려 온 책입니다. 기독교 가정의 자녀에게 권요합니다. 말씀사역자의 평생 자료로 사용됩니다.


저자 | 김명제 목사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예담교회  
발행 | 하우출판사 (온오프라인 판매) (각권 484면, 권당 24,000원)

온라인 판매처 | 알라딘 yes24 영풍문고 KYOBO 교보문고

제1권 창세기-뫼기 제2권 사무엘상-욥기 제3권 시편-이사야① 제4권 이사야②-마태복음 제5권 마가복음-요한계시록


NAVER 성경 1장 칼럼 성경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책을 펼쳐라 - 교보문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60:1)



## 다문화복음방송

(Multicultural Gospel Broadcasting Company)



대표 김덕검 목사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에 접속
2. 메인 화면의 국가나 국기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터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 하늘문을 여는 기도대성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행1:5)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자!

신현영광교회 본당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담임목사 박만규  
T 010-3739-4512

## 장대수 목사의 목요 말씀찬양을 통한 치유 대부흥성회

【부흥회 특징】

- 불같은 찬양
- 생수같은 말씀
- 강력한 축사
- 우울증해결

강사 장대수 목사  
시흥시평의교회 담임장  
대한기독교부흥사회 대표회장

국내최초 우울증 원인분석연구 박사학위 취득  
부흥회 경력 30년의 장대수 목사의  
능력있는 설교를 경험하세요

장소 | 시흥 사랑의 교회  
시간 | 매주 목요일 7시  
문의 | 010-6325-3916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377-2 삼성프라자 304호

미디어 선교를 선도하는 방송  
**지구촌 예수복음 선교방송**  
[특징] 오직!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방송  
\*유튜브 ▶ 검색창에 장대수 목사를 검색해 보세요\*

1995~2024 / 국내 최초, 국내 유일

## 교회복지연구원

교회복지학과 신입생 모집

2024년도 봄학기 신입생 모집

- 모집인원 : 00명
- 모집기간 : 2024년 4월 1일 ~ 4월 30일
- 교육기간 : 2024년 5월부터 12주  
서울(화요일), 대전(목요일)
- 교육장소 :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강의실(3층, 4층) 및 본원 강의실  
\* 서울은 단 1명이 등록해도 개강합니다.
- 등록비 :  
- 50만원(점심식사 제공, 국내 교회복지 실습비 포함)  
- 500만원(호주 & 미국으로 교회복지 실습 희망 시)  
\* 등록비는 개강식 이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시면 되며 분납도 됩니다.
- 등록방법 :  
010-9643-6356 문자로 성명, 직분, 등록 지역을 보내시거나 www.cws95.net 신청에서 이름, 연락처, 이메일을 기재하시고, 신청 내용에 신청(예/서울 신청)이라고 하시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 상담문의 : 010-8011-9191(서울/김성덕 박사)  
010-5115-9104(대전/정바울 박사)

【특전 및 진로】

- 2년 4학기 수료자는 본원 졸업증서 및 교회복지사 자격 취득(자격 발급비 없음)
- 목회자의 경우 1학기 수료 이후 소정의 자격시험 합격 시 교회복지사 자격 취득
- 목회자의 경우 국내외 교회 및 기독교 관련 복지기관 및 시설 교회복지 전문 목회자로 활동
- 평신도의 경우 국내외 교회복지 기관 및 시설, 기독교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 설치 및 운영

www.cws95.net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비산동 교회 소속

##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에게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 소 |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년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교회건축의 모든 것

## 교회건축포럼

# 교회건축&리모델링 세미나

### 주제 \_ 바라보는 교회건축

2024.04.30(화)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울 양재 엘타워 골드홀(B1층)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3 /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9번출구 바로 앞 위치]

2024.05.07(화)  
오전 10시 ~ 오후 5시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 3F 포럼 2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52 / 2호선, 동백역 1번출구 도보 15분]

- 참가비 : 30,000원(중식 및 기념품 증정)
- 우리은행 \_ 1005-604-628807 [예금주 : 교회건축포럼]
- 문의 및 등록
- 전화등록 : 070-4355-3308
- 문자등록 : 010-3966-1463
- [문자등록시 (1.교회명 / 2.등록자명(직분) / 3.참석인원 / 4.핸드폰번호)]
- info@cbuild.co.kr



**설계**  
(주)아진건축사사무소 최두길 대표

- 팬데믹 이후의 교회성장을 위한 설계
- 뉴노멀로서의 교회공간의 복합화
- 지속성장을 위한 혁신적 공간전략
- 신재생 녹색 환경의 교회



**미디어**  
(주)크리스시스템 박정민 실장

- 더 나은 유튜브 예배송을 노하우
- 방송장비 운영인력의 솔루션
- 대형 led 구축과 운영의 실제
- 할스필링과 음향기술
- 연무대학교 700석 조명 리뉴얼 사례
- 기독교 뮤지컬부터 방송 사례(수영로교회/ 호산나교회)



**인테리어**  
에스스리글로벌 최중민 대표

- 강력한 효율을 얻는 리모델링 사례 분석
- 예배를 돕는 공간 연출의 기준
- 다음세대를 위한 공간 활용
- 건축음향과 인테리어의 중요성
- 라운지의 카페, 레스토랑 솔루션
- 3D 시각화를 통한 아이디어 적용 방법



**CM**  
(주)라미건축사사무소 이범구 대표

- 교회건축 전문가가 사제를 통하여 전하는 교회건축의 올바른 방향
- 교회건축, 교회가 우선이다
- 교역자가 잘 일, 건축위원회가 잘 일
- 설계자의 업무, 사공사의 업무
- 감리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 하늘과 땅을 잇대는 교회

### 크리스천북뉴스 서평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묻는다’



개인적으로 신학의 각론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은 교회론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과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적 교회의 차이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재로서 교회가 존재해야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슬프고 암담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나오는 초대 교회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 갈등을 종재하고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자 바울은 편지를 적었습니다. 바울은 완벽하게 정리된 교리 모음집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어려움과 문제에 대처하고자 그 상황에 가장 결맞은 처방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교회가 무

엇인지 묻는 것이지요. 교회의 교회됨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복잡다단한 현실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지를 끊임없이 질문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어떠한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 지역과 교회의 현장에서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계속된 노력으로도 변화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요 말씀으로의 순종일 것입니다. 그로부터 신선한 지혜가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하지만 그것은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요 열매입니다. 여기에 그런 싸움의 흔적을 가진 교회가 있으니 ‘하늘땅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담임목사이자 작은교회연구소 소장인 이재학 목사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든든한 신학을 바탕으로 두고, 지역 교회들과 세상과 소통하는 모델을 제시합니다.

예배, 교육과 교제, 선교는 교회론의 핵심적 주제입니다.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목회자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현장에서 이 영역들에 균형을 잡고 생명을 더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여러 상황으로 인해 어떤 영역들은 축소되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저 영역 이외의 세상 가치관이 침투하는 것이겠지요.

위의 영역들이 선순환을 일으킬 때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저자는 각 영역들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구체적인 사례들로 적용합니다. 실제적인 교회 현장의 목소리가 들어가니 막연했던 교회론은 구체화된 살아있는 교회로 다가옵니다.

특히 지역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교회의 사명으로 삼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지역과 소통하며 그 필요에 반응하는 목회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지역의 다른 교회와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고 섬기는 것은 한국교회가 상상할 수 있는 적실한 대안으로 보입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자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교회와 함께 손을 잡고 가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더불어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가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 지역을 살리며, 동역자를 세워가는 일임을 강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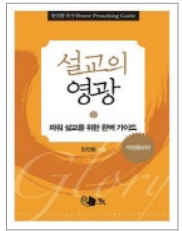
앞으로 세상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며, 그만큼 더욱 다양한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보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부름이요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모중현 목사, 크리스천북뉴스 편집위원

### 신간

## 설교의 영광

설교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언어, 다른 시대 그리고 다른 문화 속에서 썼던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만남을 이루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존 스토틀(John Stott)는 그의 책 Between Two Worlds에서 “다리놓기”(Bridge-building)라고 표현했다. 그에게 있어 참된 설교란 성경의 세계(ancient world)와 오늘날의 세계(modern world)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이 두 세계를 분석하는 일에 몰두해 왔다. 하지만 설교는 성경의 세계와 현대만으로 불충분하다. 설교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만남의 사건이요, 역동적인 교제의 순간이며 설교자가 자신의 세계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저자 한찬원 목사(경남 프리젠티 아카데미)는 이 책을 통해 설교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만남의 사건, 역동적인 교제의 순간, 설교자가 자신의 세계관을 통해 이루지는 행위”라고 말하며 “설교는 성경의 세계에 대한 해석이나 분석도 중요하지만 오늘날의 시대에 대한 이해와 깊은 통찰도 동반되어야 한다”며 설교자 자신의 인격과 영성이 잘 배어와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책 속에서 “설교는 복음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설교이다. 고대 회람에서 전쟁터의 전황을 알려주는 것은 전령의 몫이었다. 별관을 가로질러 숨가쁘게 달려오는 전령을 목격하는 순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바라본다. 그의 머리에 승리를 상징하는 화관이 씌워져 있으면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한다. 마침내 백성들 앞에 우뚝서서 그는 손을 높이 들고 외친다 ‘Claire, nikomen!’(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이겼습니다)”고 했다.

이어 “설교자도 이와 같은 전령으로 강단에 선다. 이 우주의 전쟁마당에서 사탄을 이기신 우리 대장 예수의 승전

보를 소리 높여 외치기 위해 서는 것이다. 설교는 복음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그것을 증거하는 증언이다. 예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세워 놓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셨다. 전도자 바울에게는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는 사명이 주어졌다. 설교자는 단순히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피력하거나, 어떤 사상을 변호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심령 속에 울려 퍼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자신에게 임한 은혜와 빛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일 뿐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메시지를 전하는 증인이 어떤 사람이나 하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의 메시지의 진정성은 그의 영성과 직결되며 메시지의 감화력은 그의 인격의 깊이와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빛은 한 가지지만, 그 빛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하면 다양한 색채를 띠는 것과 같이, 진리도 그 진리를 투과하는 증인이 어떤 사람이나에 따라 광휘를 발하기도 하고 그늘에 가려지기도 한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 신간

## 혼종의 나라

‘끔찍한 혼종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는 혼종이 부정적 의미로 쓰일 때가 많다.

페르시아와 로마 같은 모든 제국의 문화는 혼종이었다. 제국의 영향을 받은 문화식민지는 혼종성을 키움으로써 제국과 식민지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문화권력을 전복할 수 있다.

순수성은 신화에 불과하고 제3의 공간인 혼종성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출현할 수 있다. 이러한 혼종적 정체성은 본

질적으로 유동적이고 역동적이고 적응력이 강하며, 새롭고 혁신적인 무언가를 탄생시키기 때문이다.

‘혼종의 나라(은행나무)는 문화 전문 저널리스트 문소영이 한국 문화를 ‘혼종’이라는 콘셉트 아래 7개 키워드로 구분해 바라본 책이다.

영화, 드라마, 예능, 미술 등 다양한 시각문화와 사회적 이슈 등 일상의 이면에 질문을 던지고 그것들에 숨겨진 오늘날의 한국 사회와 한국인 특징들을 포착한다.

저자는 개인과 세대, 나아가 우리 사회와 전 세계가 열광하는 한국의 문화의 트렌드를 꿰뚫는 하나의 단어로 ‘혼종



(hybrid)’을 꼽는다. 이를 한국 문화를 관통하는 핵심으로 소환해 우리를 둘러싼 사회 곳곳의 문화적 현상을 분석해 낸다.

자신이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수혜로 자유와 물질적 풍요를 누림과 동시에 전통적이고 유교적인 사고방식, 집단주의적 가치체계에도 익숙한 혼종세대인 X세대라고 말한다.

이러한 혼종적 특성을 내재한 채 영국에서 유학하며 그곳의 문화를 바라보았을 때 느낀 양가적 감정에 대해서도 토로한다.

이러한 혼종적 상황이 비단 한 개인의 내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도 만연해 있다고 말한다. 이수지 기자

### 4월, 작가들의 말말말



진리의 구체적 사례인 2+2=4를 생각해 보자. 이것은 우주의 모든 곳에서 참이다. 항상 참이다. 이 진리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진리는 세 가지 핵심 속성, 즉 판재성(어디에나 존재함), 영원성(항상), 불변성(불역성)을 지닌다. 불변성은 단순히 변하지 않음보다 더 강한 개념이다. 진리가 변하지 않음만이 아니라 변할 수 없음을 말한다. 진리의 이 세 가지 특징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은 판재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진리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진리를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알고 있다. 이것은 인간 차원에서 우리의 반응으로 일어나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므로, 우리 인간의 반응은 피조물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을 반영한다. 하나님과 진리의 자연스러운 관계는 어떻게? 하나님은 자애로우시며 진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위격들이 “상호내재하신다”고 말할 수 있다. 성부가 성자 안에 거하시고 성자가 성부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는 구체적인 구절들에서 이 가르침이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 그것은 진리에 대해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도 암시되어 있다. 삼위일체의 각 위격은 진리를 온전히 아신다. 변 S. 포이트레스 ‘진리, 신학, 관점’



전통이 “모든 계급 중 가장 알려져 있지 않은 이들, 곧 우리의 조상들에게 투표권을” 주어 “선거권을 확장”하는 과정이라면, 전통사를 연구하는 이들은 전통이라는 피아노 협주곡 중 피아노 독주자(그중에서도 탁월한 연주자)의 소리만 들어서는 안 되며, 오케스트라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밀턴 페리가 역사 속에서 전통을 다시 발견하는 가운데 호메로스라는 한 사람(혹은 사람)들의 시인을 넘어, 무명의 음유 시인들과 전통의 전수자들에게, 더 나아가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부족에 있는 호메로스 전통의 정당한 후계자들에게 나아갔듯 말이지요. 물론 이 이야기에선 탁월한 독주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목 있는 아라만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탁월한 독주자의 연주에 빠져드는 기쁨을 놓칠 수 없겠지요. 전통사 연구자가 아우구스티누스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그에게 영향을 받은 아우구스티누스주의를 살펴본다면, 아우구스티누스를 맹목적으로 떠받드는 이른바 ‘영웅 사관’을 피해야 합니다. 아로슬라프 펠리칸 ‘전통을 옹호하다’



우리는 헌신해야 한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첫 번째로 삼아야 한다.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 이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럴 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첫 번째로 삼으셨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일 4:19).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먼저 구하라고 요구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분께 바치라고 요구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주셨다.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기로 ‘미리’ 결정하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월급 받기 위해 하는 일’로만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의 일은 단순히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의 일을 무엇으로 여길지 미리 결정해야 한다.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온 단 한마디 격려의 말로도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으실 수 있다. 바로 내 삶이 그 증거다. 이것이 내가 오늘날 목회를 하고 있는 이유다. 크레이그 그로셀 ‘미리 결정하라’

크리스천투데이

##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장로 (구세군 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진적으로 받아들이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준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제가 읊어낸 책입니다. 박오철 목사 (양원내산교회)



# 매일묵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갑시다(2)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 된 육신으로는 우리의 의로서는 결코 이를 수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일의 성취에 관하여 하나님은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겔 36:27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36:28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리라.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시고 고대하셨던 그 일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받는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셔서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을 힘써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5-6절입니다.

롬 8:5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8: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도가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를 대조했습니다. 먼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행합니다. 육신의 일에 관하여는 갈라디아서 5장 19-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갈 5:19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5:20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5:21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 같은 육신의 일을 행합니다. 더러워지고 약해집니다. 싸우고 나뉘지고 방탕하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사망,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에 영을 따르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의 일,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열매를 거둡니다. 성령의 일, 성령의 열매는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갈 5: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5:23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따르는 자는 이 같은 성령의 열매를 거둡니다.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주의 일에 충성하고 잘 다스립니다. 그리고 결국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사망과 생명이라는 이 전혀 다른 결과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이 작은 것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데 죄가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고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살려면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합니다. 7-8절입니다.

8: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



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8: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우리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치 않게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 원망을 낳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거역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내 안에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들을 죽여야 합니다. 하지만 육신의 생각과 일을 나의 의지로 율법적으로 없앤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없앤다고 해도 또 다른 것이 생겨납니다. 내 안에 육신의 생각과 일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육신에 있지 아니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일들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8:10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8: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므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 몸도 살아날 것입니다. 죄가 없는 거룩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 장에서 사도가 말하는 몸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의 부활, 영광스러운 자녀의 형상을 입게 될 그날까지 그리스도와 긴밀히 연합되어 그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 성령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성령을 선물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 종이나 여종이나 차별 없이 모든 자에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선물같이 주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은혜의 때와 역사들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은혜의 때에 우리 모두 가난하고 목마른 심령으로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힘써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한날을 맞이합니다. <계속>

서광교회 제공 seogwangchurch.org

## 바이블지식IN

###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구속의 날을 위해 우리를 인 치시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에베소서 1:13, 4:30).

예수님은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요한복음 16:13)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진리의 일부는 하나님의 일들을 취하여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적용이 이루어질 때, 신자는 성령께서 자신을 다스리도록 허락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영성은 거듭난 신자가 자신의 삶을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에 맡기는 정도에 근

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에베소서 5:18)”

이 구절의 시제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그저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치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누

군가가 술의 지배를 받게 될 때, 그는 술에 취해 허가 꼬부라진 말을 하거나, 불안정하게 걷거나, 의사 결정이 둔해지는 등의 어떤 특징들을 드러냅니다. 술 취한 사람의 특징 때문에 그가 술에 취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거듭난 신자는 성령의 특성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는 그 특성들을 갈라디아서 5:22-23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소위 “성령의 열매”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신자 안에서, 그리고 그 신자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에 의해 맺혀지는 진정

한 기독교 영성입니다. 이러한 성품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거듭난 신자는 건전한 말과 일관된 영적인 행보를 보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의사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영성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성령의 사역에 복종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매일의 관계에서 “알고 성장하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신자로서 우리가 자백을 통해 (요한일서 1:9) 성령님과

분명한 소통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 (에베소서 4:30; 요일 1:5-8),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쌓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에 복종할 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막힘이 없습니다(데살로니가전서 5:19).

기독교 영성은 육체와 죄에 의해 가로막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영과 의식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령의 사역에 순종하기를 선택할 때,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개발됩니다. 갯켄스켄스 제공

**CHOI'S PREMIUM**

업그레이드 리뉴얼 출시

성분도 UP! 용량도 UP!  
"더 커진 프리미엄 환"으로  
고객님의 사랑에 보답합니다.

광동제약 전속모델

반세기 광동의 독심으로  
마침내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고객 감사 업그레이드 출시!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기념 특별 감사 이벤트

{일선착순 500명 한정!}

※ 증정품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구매 시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무료 증정!

생명의 진한 정성, 광동 쌍화진 30포 1박스 추가 증정!

침향, 침향추출에센스, 녹용의 빈틈없는 3중 황금배합으로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은 진귀한 '침향'에 최상위 SAT 등급 뉴질랜드산 '녹용', 침향나무에서 극소량만 얻을 수 있는 '침향추출에센스'까지 담아 광동제약의 반세기 노하우와 기술력이 집약된 프리미엄 침향환 제품입니다.

100kg 침향나무에서 약 1kg 가량 추출한 진귀한 '침향추출에센스'는 광동제약의 독자 기술력으로 β-유데솔 등 침향 성분을 담아내어 적은 용량으로도 침향이 지닌 다양한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직 최상위 SAT등급 청정 뉴질랜드산 녹용 전지를 통째로 사용하였습니다. 부위별 쓰임새가 다른 녹용의 힘을 오롯이 담아내기 위해 녹용 전지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무료 상담 **1899-1260**



## 강지윤 칼럼 부모는 적극적 경청의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강지윤 박사

아이와 아이 엄마 사이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침울해 보이는 한 아이가 엄마의 손에 이끌려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아이다운 활발함은 찾아볼 수 없었지요. 여러 차례 상담을 한 끝에

민수(가명)는 학교에서 한달음으로 달려왔다. 엄마에게 오늘 선생님께서 칭찬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엄마를 불러왔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엄마는 민수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대로 서서 자신의 일만 열심히 했다.

민수가 엄마 옆에 다가와 "엄마, 나 오늘 선생님께서 칭찬받았어요. 수업 태도도 좋았고 숙제도 잘해왔다고....."

민수가 약간 흥분된 어조로 열심히 엄마에게 설명했지만 엄마는 단지 한 마디의 짧은 대꾸를 했다.

"응." 그것이 끝이었다. 민수는 엄마의 시큰둥한 반응에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이내 시무룩해졌고, 잠시 쇼파 위에 앉아 있다가 집 밖으로 나가버렸다.

위의 사례에서 민수 엄마의 반응이 적극적 경청과 적극적 반응으로 나타났다면 민수는 더욱 신이 나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하게 엄마에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더욱 자신감을 가진 아이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민수의 창의력과 자기 존중감이 확대되었을 것이고 그것은 민수가 앞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데 큰 자양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민수 엄마는 정도가 조금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아들과 대화를 나눌 기분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엄마의 이러

한 태도가 계속 쌓이게 되자 민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소아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아이가 되어 갔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접할 때면 언제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은 자신의 작은 몸짓이나 표정 하나에도 아이의 영혼이 울무 잡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엄마의 우울한 기분, 엄마의 화난 몸짓과 말투, 엄마의 무기력한 모습, 엄마의 비난하는 태도 등은 조금씩 아이의 얼굴에서 기쁨과 웃음을 빼앗아가고, 급기야는 무의식의 깊은 곳에 더욱 단단한 불안을 겹겹이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 불안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무수한 후유증과 병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한 인간이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막대한 장애를 가져다줍니다.

적극적 경청이란 내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대답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으며 그저 들어주는 것에만 고마

움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심각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해서 는 안 됩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면 됩니다. 대답해야 할 때도 즉각 대답하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참으면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생각을 정리하는 순간을 방해하는 무례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 상대방과의 대화를 무척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덕분에 경청자의 인격적 가치는 높아집니다.

셋째, 실제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뿐 아니라 그 속까지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건 ~하다는 말씀이군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나요?"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이렇게 대화를 진행하다 보면 이야기의 흐름이 상대방 위주로 진행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은 질문하는 사람에게 지배되기 마련입니다.

"아하! 그래서 당신은 그렇게 했군요." "저런,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당신의 입장이 무척 난처했군요."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일이 잘 풀려서 다행입니다."

수동적 경청이란 상대의 말을 가로막지는 않지만, 공감도 주의 집중도 그저 상대가 말하도록 놓아두는 경청을 말합니다. 반면에 적극적 경청이란 말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집중하고, 공감해주는 경청입니다. 상대방과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데요?" 라는 추임새를 넣으면서 듣는 방법이 적극적 경청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부모와 자녀의 대화에서 적용해 보세요.

자녀들은 부모를 신뢰하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우리 민이가 마음이 많이 아팠겠구나!" "그 친구가 해람이를 괴롭혀서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럼, 그렇고 말고" "민석이가 그렇게 말하니 엄마 마음이 무척 기쁘구나!" "그래, 그랬다는 말이지?"

부모의 적극적 경청의 자세는 자녀로 하여금 큰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많은 부모가 바쁘다는 이유로 자녀와 눈을 맞추며 올바른 대화를 시도하는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마음을 돌 테가 없어 방황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며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어야 합니다.

강지윤 박사(심리상담학 박사,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대표)

### 건강상식

## 꼭꼭 잘 씹기, 가장 쉬운 건강법

점심시간 식당에 가면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가 '빨리빨리'이다. 한국인에게 스푼과 여백의 미가 언제 있었냐는 듯 현대인들은 늘 쫓기듯 살고 있다. 한 상 가득 차려놓고 빨리 먹어야 제대로 먹은 것 같은 한국인들에게 기다림을 요하는 외국의 코스 요리가 답답한 것은 당연지사. 보통 한 시간으로 정해진 점심시간 중 직장인들이 식사에 투자하는 것은 고작 5-10분이 전부다.

식사를 이렇게 빨리 끝내니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태반이며, 천천히 씹어 먹었다면 필요 없게 소화제까지 챙기는 경우도 많다. 가장 간단한 건강법을 우리는 지나치게 소홀히 하고 있는 셈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식사 교육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꼭꼭 씹으라"는 말이다. 꼭꼭 씹는 것은 음식물을 잘게 부숴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씹는 과정에서 분비되는 침이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다. 음식을 충분히 씹으면 익힌 야채나 곡류도 낱 것과 똑같이 살아 있는 음식이 된다고 한다. 침 속의 유익한 효소가 죽은 식품도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침은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입 안에 들어온 해로운 물질의 독소를 제거하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을 잘 씹지 않는다면 소화에도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기혈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는 노폐물인 '담음'이 생기는 원인이 된다. 담음이 생기게 되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해 신체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만이 되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결국 씹기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다. 동의보감 내경편에는 연진법을 통해 침을 수시로 삼켜 120세까지 장수했다는 기록도 나와 있다. 연진법은 혀 끝을 잇몸에 대고 잇몸 전체를 마사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입 안에 침이 고이면 삼켜주면 된다. 고치법도 씹기와 침의 효과를 토대로 한 운동법이다. 입술을 가볍게 다문 후 윗나와 아

랫니를 서로 부딪혀 주는 것이다. 한 번에 36회 정도 하면 치아 건강은 물론이고 침 분비를 돕고 머리로 맑아지는 효과가 있다. 다만 의욕이 지나쳐서 심하게 부딪히게 되면 건강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이가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다가도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해준다면 건강한 삶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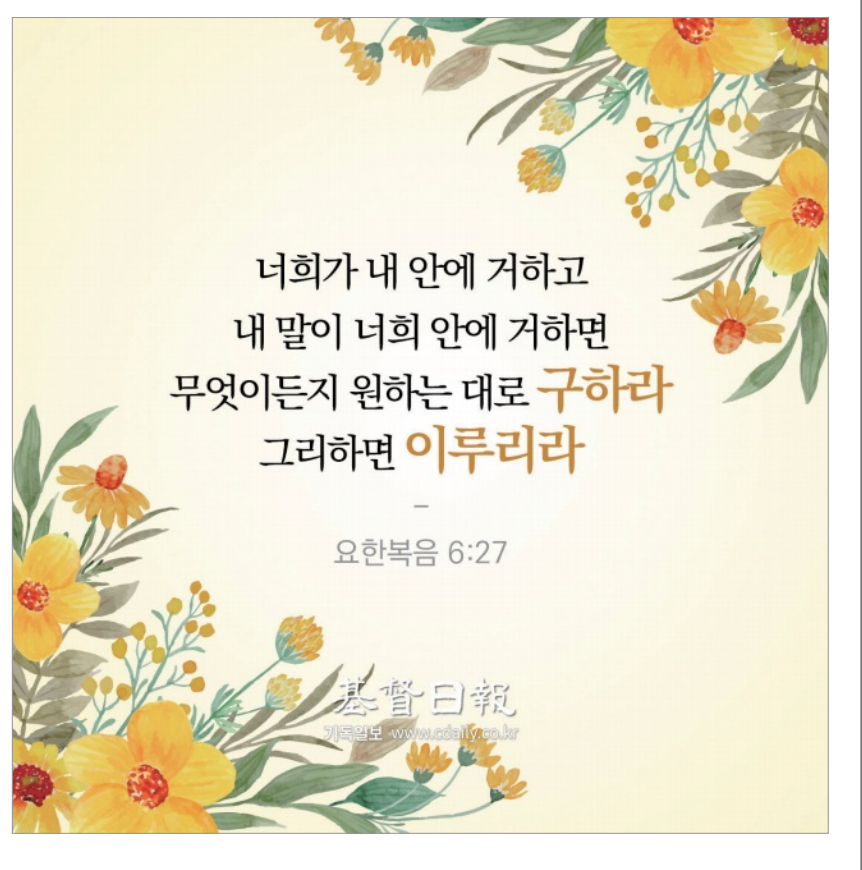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껌 씹기가 있다. 껌을 씹으면 침 분비를 돕고 이것이 입 속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 역시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이고 입 안에 침을 고이게 하는 좋은 방법이다. '랄라라' 등의 발음을 자주 반복하고 입 안에 음식이 없어도 혀를 자주 움직이는 습관을 들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식사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다. 처음에는 귀찮은 일일 수 있겠지만 한 수저에 50번 씹기를 실천한다면 소화는 물론이고 건강을 지켜내는 데도 효과적이다.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1000~1500ml 정도의 타액을 분비하는데 주로 씹는 행위를 통해 분비되는 것이다. 침이 분비되지 않아 입 안이 마르면 구취는 물론이고 각종 염증, 잇몸 질환을 비롯해서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그렇기 때문

에 입 속에는 항상 침이 고여 있어야 한다. 과식을 막기 위해서도 천천히 잘 씹기는 중요하다.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은 식사를 시작하고 20분이 지나야 분비되기 때문에 천천히 꼭꼭 씹어서 음식

을 먹게 되면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 덕분에 음식을 많이 먹지 않게 된다. 이것이 위 건강을 지키고 비만을 막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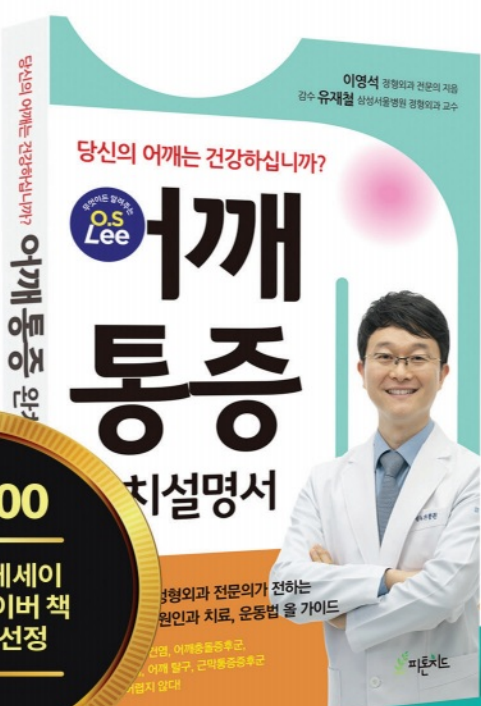
김소형 한의학박사

### 은혜 한 장



#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올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 신앙과 가정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민주주의의 폐단은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다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진다)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이유이며,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뿌리 깊은 폐단이라고 봅니다. 생각해 보면 억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더 노력하나 봅니다. 노력하다 못해 로또나 잭팟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 중에서 로또를 교회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John Pipa 목사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는 '인생을 파괴하는 도박, 영적 자살 행위'이라며 로또를 구입하는 교인들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또는 가난한 사람들을 속여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열중하도록 만든다. 이로 인해, 가난한 사람

들은 연 소득의 6%를 로또 구입에 사용" 한다고 지적하고 이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는 심정을 이용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는 행위이기 때문이며, 또한 교회에 빼앗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 세워지지 않았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탈탈 털어 요행을 심어주는 행위를 지적한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그런 부익부 빈익빈과 같은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18에서 예수님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온갖 유혹과 시험을 안겨줍니다. 씨뿌리는 비유를 봐도 그

렇습니다. 길가에 뿌려지고, 바위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것은, 마귀가 제공하는 '유혹과 시험' 때문입니다. 마 13장에서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깨닫지 못할 때에 마귀가 와서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내 잘못입니까? 아니라고 하겠지만, 깨달음을 얻도록 마음을 기울이지 못하면 그것은 내 잘못입니다. 깨달음에 게으르면 내가 먹기 전에 마귀가 막아버립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면 그야말로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것이 우리들의 속성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지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있던 은혜, 쌓아둔 은혜까지도 하루아침에 탈탈 털려서 노숙자 신세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우리의 심령 밭에 떨어졌습니다. 좋

든, 싫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자라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밭이 되도록 일구어야 합니다. 열매가 100배, 아니 못해도 30배가 열릴 마음 밭이 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내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빨리 돌아쳐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문제를 남에게서 보게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보는 재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사람만이 그것을 봅니다. 있던 것마저 탈탈 털어야 합니다. 은혜가 많은 곳에서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은혜를 불러오고, 사랑이 사랑을 불러옵니다. 절대로 미움과 증오의 다름이 은혜를 불러오지 않습니다. 열매 맺어야 합니다. 처절하나 싸움을 해서라도 말입니다. 아름다운교회 제공

### 향유옥합

## 종말의 징조 앞에서 한 목사의 갈 길



이제 종말의 징조가 넘쳐나는 때가 되었다. 교회가 말하지 않아도 과학자들과 일반 뉴스와 일반인의 유튜브에 넘쳐나고 있다. 종말과 징조와 환란이라는 낱말이 사용되고 있다. 종말과 징조와 환란이라는 낱말보다 더 과학적이며 영적인 말이 없는 때가 되었다. 이 종말의 징조 앞에서 주께서 계시하시며 요청하신 것이 있다. 그 날과 그 때는 주님도 모른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아신다! (막 13:32) 다만 우리가 지킬 것이 있다. 그것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것이다. (눅 21:36) 목사로서 어떻게 깨어 있으며 항상 기도할 것인가? 기도 끝에 주께 기도하며 나를 향하여 이런 선포를 한다. 첫째, 회개의 은혜를 구하라. 과거를 회개하고 회개로 미래를 대비하라. 둘째, 구원을 위한 일이 아닌 것에는 시간도 재물도 예산도 낭비하지 말고 영혼 구원에 집중하라.

오늘 이 시대의 종말의 원인은 노아의 때나 소돔과 고모라의 때나 모두 동일하다. 지구 온난화를 지나 열대화의 원인은 인간의 타락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 3:5) 셋째, 삼꾼 노릇에 해당하는 생각이나 습성과 관행은 모두 버리라. 이제 후론 성공 목회는 꿈도 꾸지 말라. 사람보고 목회하지 말라. 오직 주만 보고 명하신 바만을 사랑하라. 세상 칭찬 들을 생각하지 말고 회개를 선포하고 이 시대를 주의 이름으로 구원하라. 이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라. 산마루예수공동체에서 그간 자필 자랄의 농지를 만들었다. 이제 기도굴(돌무덤)을 만들어 기도할 터를 마련하고 있다. "회개한 자가 거하는 거룩한 땅이 되라" 하신 그 명령과 그 감추어졌 있던 뜻이 더욱 분명해 지고 있다. 산마루서신 제공

### 성지순례

## 가데스(Kadesh) 또는 가데스 바네아(Kadesh-Barnea)

'거룩한 샘'이란 뜻이다. 출애굽기 이후는, 가데스바네아(민 32:8, 신 1:2)로 부르지만, 창세기에서는 엔 미스밧(창 14:7)으로 부른다. 가데스바네아(Kadesh-Barnea)는 모세가 열두 정탐꾼을 보낸 곳이다(민 13). 열두 정탐꾼은 돌아와 보고를 한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열 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군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 한다.

이때 하나님은 가나안 정탐 40일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하여 40년을 배회하도록 한다.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리라 고 선언하신다(민 14). 그 외에도 제사 규례를 가르친 곳(민 15:1-31)이며, 고라의 무리가 모세의 명을 거역하다가 멸망 당(민 16:1-40)한 곳이기도 하다.

백성들이 원망하다 1만 4천 7백 명이 이곳에서 죽는다(민 16:41-50). 마리아미 죽은 곳이기도 하다(민 20:1). 가데스바네아는 좁은 곳이 아닌 넓은 지역을 의미하는 듯 보인다. 그렇다고 광대한 지역은 아니다. 가데스바네아가 어느 곳인지 정확하지 않다. 1842년 존 로랜드가 이곳을 정탐했다. 그는 동 흐르 산을 향하여 있는 아리

바 강과 서 가사에 접한 하리스티아 해안의 사이에서 수목 없는 석회 고원에서 가데스라고 생각되는 장소를 발견하고 그곳에 있는 아름다운 샘을 발견하였다. 1914년 다시 탐사가 이루어졌고, 적지 않은 유물이 발굴되었다. 그러나 고고학을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추측할 뿐이다. 가데스바네아는 출애굽 한 이스라엘에게 애환이 많은 곳임은 분명하다. 성경의 세계 제공

### 성경상식

## 테살로니카 (Thessalonika)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동생이며, 자기 아내인 테살로니카의 이름을 따서 카산드로스가 세운 도시이다. 당시 테살로니카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리스인이었고, 상당수의 유대인, 로마인, 그 외 다른 민족들이 있었다. 이 도시는 소아시아와 로마의 교차지이며, 군사 지역, 상업 도시, 그리고 그리

스 철학이 뿌리를 깊게 내린 곳이다. 7세기에 동로마제국이 이집트와 시리아를 빼앗은 후 테살로니카는 동로마제국에서 콘스탄티노플(이스탄불) 다음가는 대도시로 번창했다. 1430년 이후 거의 500년 동안이나 터키 지배하에 있다가 1912년에 와서야 그리스인들이 다시 차지하게 되었다. 돌북 출판사 제공



테살로니카

〈산마루서신 <http://www.sanletter.net>〉은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과의 영적인 대화이며, 진실한 만남이며, 사랑의 소통입니다. 참된 삶을 구하는 모든 영혼들과의 진실한 주님 안에서의 대화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안전동화 시리즈 | 해와 달 편

# 위급한 순간의 생명을 안전띠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4배 이상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 존귀한 질그릇, 능력의 통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후 4:7)



켄트 헨리

우리는 존귀한 질그릇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통로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1988년, 주님께서는 저에게 <존귀한 질그릇(Vessels of honor)>이라는 예언적 노래를 주셨는데, 이 노래로 인해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의 더 높은 목표를 구체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존귀한 질그릇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을 완성하기 위해 성령님께 붙잡히며 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주님의 존귀

한 질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에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높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 질그릇에 담긴 하나님의 보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따르면 존귀한 질그릇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묻혀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깨내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측면(기도, 성경 공부 등)과 우리 삶의 실제적 측면(가정과 일에 관련된 문제 등)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그릇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려놓고 변화될 준비가 된 그릇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의 은사를 스스로 가장 많이 끌어올려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의 능력이며 우리와 세상이 알고 있는 수준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능력의 탁월함과 영광을 증거하는 그릇이 되게 합니다. ‘그릇(Vessels)’에 관한 웹스터 사전의 정의에는 다음 세 가지 특성이 포함됩니다.

첫째, 어떤 영이나 영향력을 받거나 저장하는 것.

둘째, 그릇이나 주전자와 같이 대상을 보관하기 위한 용기.

셋째, 식물학에서 물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통로나 관.

이 정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사용되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몇 가지 측면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 우리는 이제 성령님을 담은 그릇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안내하실 종재자요 조력자가 되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존귀한 질그릇이 되

도록 우리를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며 그 보증(계약, 담보)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둘째, 우리는 담은 그릇이므로 주님의 생수가 흘러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고후 5:5)

과여 있는 웅덩이입니까 흐르는 강물입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8절의 ‘강’은 헬라어로 포타모스(potamos)에 해당합니다. 이 단어에는 강, 조류, 시내, 개울 또는 큰물(마실 수 있는), 강물(흐르는 물)이라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이는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를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어쩌면 성도들은 세상의 목

마른 영혼들이 마실 수 있는 복음의 생수로 가득 찬 그릇이 되는 대신, 과여 있는 썩은 웅덩이가 된 것은 아닐까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을 통해 주변에 생수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샘물과 같다는 표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수의 샘물이 당신의 배로 예표된 속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올 것입니다.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시 34:8)” 시냇물과 강물이 우리 안에서 매일 흘러나오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 7:37-38)

### ◆ 켄트 헨리

지난 40년간 찬양과 기도, 예배와 중보를 혼합한 기쁨을 바탕으로 예배 인도와 훈련에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곳곳이 지켜왔다. 켄트 헨리는 호산나 인테그리티의 첫 공식 앨범인 “All Hail King Jesus”를 포함한 6장의 앨범을 녹음했으며 이 앨범들은 모두 베스트 셀링을 기록했다. 개인적으로 약 40여 개의 예배 실황 앨범과 스튜디오 앨범, 연주 앨범을 제작했다. 현재는 큰딸 제시카와 사위 짐 스티븐이 섬기는 세인트루이스 데스티니 처치의 합동 리더로 섬기고 있다.

## 충분한 예배 준비를 위한 Tip

아무리 잘생기고 발톱이 날카로운 독수리라도 어릴 적 하늘을 나는 연습을 하지 못했다면 절벽에서 뛰어 내리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만약, 예배 인도자가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생기는 두



고궁일 목사

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비롯되는 두려움이 아닌, 연습 부족으로 인한 두려움이라면 이런 걱정을 하게 될 것이다. ‘오늘 멘트 실수하면 어떡하지?’, ‘밴드가 제대로 박자 맞춰서 들어와야 할 텐데.’, ‘싱어들 화음이 불안해.’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의 은사를 스스로 가장 많이 끌어올려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도 예배팀일 것이다. 하지만 매주 드리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배팀에게 있어서 충분한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팀은 시험 준비를 제대로 못한 채 기말고사를 치는 것 같은 불안함을 느끼며 예배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만약 예배팀이 불안함 속에서 예배를 인도한다면 그 예배는 성령의 인도보다는 불안함의 인도를 받을 것이다. 충분한 고백은 충분한 은혜를 일으키는 기초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충분한 고백 즉 충분한 예배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충분한 예배 준비는 충분한 시간으로부터 NO

충분한 연습이 꼭 충분한 시간에서 오는 것만은 아니다. 어차피 예배팀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2시간 이상의 연습으로 피로감이 쌓이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다. 나는 종종 모두가 지친 상황에서 연습을 더 하고 할 때보다, 마치는 시간을 미리 정해줄 때 연습의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대부분의 교회 예배팀은 짧으면 1시간에서 길어도 2시간 정도밖에 연습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더 이상의 연습이 불가할 만큼 피곤함이 쌓이는 이유도 있지만, 대부분의 팀원이 자신만의 스케줄로 바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연습시간의 경계를 정해주는 일은 이들이 연습 중에 스스로 자신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해 매우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시간 안에 충분하다고 느낄 만큼 생산적으로 연습하는 일이다. 팀 휴즈(Tim Hughes)는 예배팀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예배 인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최대한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팀을 연습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충분한 연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 팀원들 모두 스스로 연습이 충분하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예배 인도의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운영 능력이다.

예를 들어, 뮤지션과 싱어들이 같은 시간에 도착해서 연습을 시작하면, 흔히 2시간의 연습 시간 중 1시간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 중 대부분은 뮤지션들의 악기 셋업이나 튜닝에 걸리는 시간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한다. 나는 예배팀을 준비시킬 때 싱어들과 세션들의 연습 시작 시간을 다르게 하는데, 주로 뮤지션들에게 연습 장소에 먼저 도착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뮤지션들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먼저 오게 되면 그들은 미리 악기를 튜닝(Tuning)하거나 잼(Jam)을 통해 서로 호흡을 맞추기도 하고, 시간이 좀 더 되면 곧 하게 될 예배 곡들에 대해 미리 인도자와 호흡을 맞출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싱어들은 와서 곡을 부르고 연습하는 일에 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먼저 와야만 하는 뮤지션들의 고충을 생각

한다면, 예배 인도자의 재량으로 싱어들을 같은 시간에 불러 싱어끼리 연습 전에 미리 발성이나 호흡을 맞추도록 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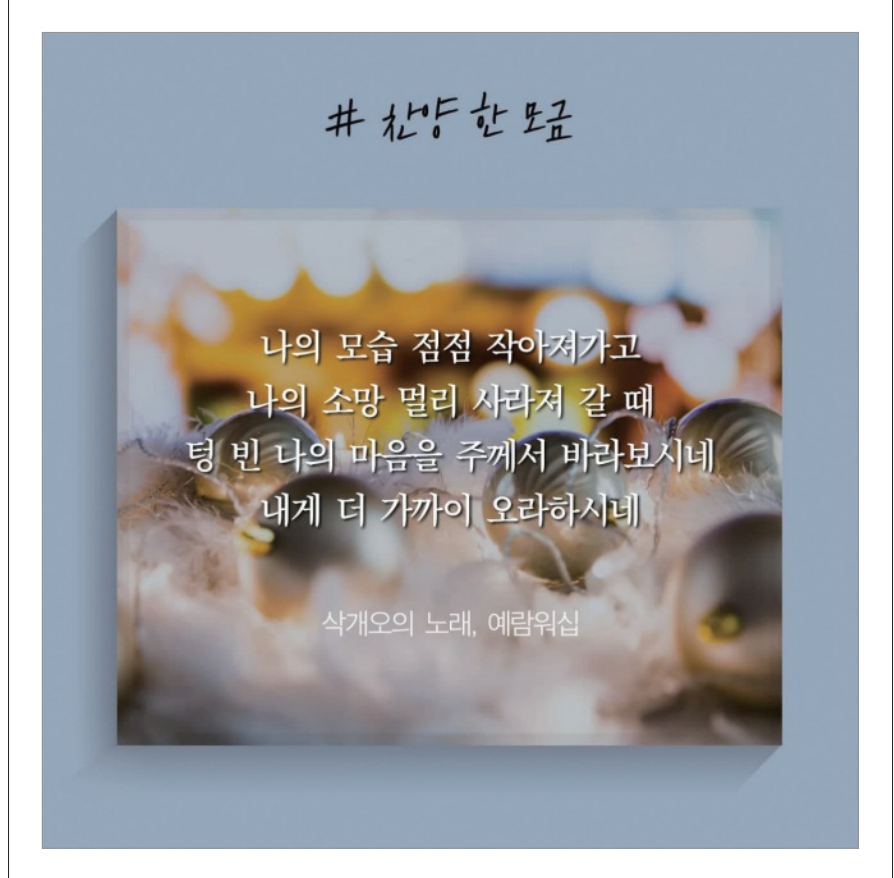
또한, 충분한 연습은 곡 선정에서도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최근에 출시된 곡을 두 곡 이상 가지고 온다면 팀원들이 그 곡들을 외우는 일뿐만 아니라 곡을 이해하고 자기만의 고백으로 부르기까지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는 결국 팀원들이 예배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나는 종종 찬양 인도자가 콘서트 중 3분의 2 이상을 새로운 곡으로 가져와서 싱어들이 배우는 데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하는 것을 본다. 예배를 위한 준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싱어들이 노래를 배우는 데 시간을 다 소모하고 있다면 예배가 시작된 후 회중들의 예배는 곡을 배우는 데 지나지 않을 것이다.

선곡을 할 때 예배 인도자는 항상 ‘곡에 시간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시간에 곡을 맞출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때때로 곡에 시간을 맞추면 시간이 예상보다 더 많이 필요한 때가 있다. 하지만, 시간에 곡을 맞추면 인도자는 곡을 어떻게 선곡해야 할지 알 수 있고, 또 충분히 연습이 되도록 콘티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된다. 가령 연습할 시간이 1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면 그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여유를 남겨둘 만큼 잘 아는 곡들로 콘티를 구성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싱어들이 가사에 대해 진실한 고백을 하는 데 불안감이 없는 만큼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에 장애요소가 사라진다. 따라서 예배 인도자는 1시간을 연습하든, 2시간을 연습하든 곡들을 자신들의 고백으로 소화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질 만큼만 선곡하는 절제의 능력이 필요하다.

### ◆ 고궁일 목사

영남신학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기독교교육학과 신학을 전공하고, 미국 폴러신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졸업하였다. 전 풍성한교회 찬양디렉터로 사역했던 그는 한국, 미국, 중남미에서 다년 간 한인교회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교회적 상황에 따른 예배사역의 노하우를 터득하였으며, 그 외에도 중국, 일본 및 중남미 지역을 다니면서 각 나라 언어로 선교 집회 찬양을 인도해왔다. 『꿈꾸는 예배 인도자』의 저자이며, 현재 미국 샌디에고(San Diego)에 거주하며 코워십미니스트리(koworship.com)를 통해 지역교회들의 예배팀 성장을 돕고 있다.



# 나랑 가까워서 좋고 나를 잘 알아서 좋은 우리동네 좋은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e음” 앱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확인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ASSURANCE REVIEW & PROMOTION SERVICE



# 히즈쇼 여름성경학교, 새 친구 초대하는 <바이블 파티>

한국교회에 주일학교 콘텐츠를 제작·보급하고 있는 '히즈쇼(His Show)'가 '친구들을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파티 형식의 재밌는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2024년 히즈쇼 여름성경학교의 주제는 '바이블 파티-유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이야기를 주제로 했다. 히즈쇼는 "우리 아이들은 세상 문화 가운데 혼란스러워 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다"며 "바이블 파티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배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블 파티'에는 친구초청프로그램 <바이블 파티에 초대합니다>가 포함된다.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동안 체계적으로 장기결석자와 새 친구를 전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친절하게 만들어진 진행가이드(초대장, 행정자료, 포도존, 환영이벤트 프로그램 등)에 따라 매주 해야 할 일을 차곡차곡 실행한다면, 아이들이 친구들을 성경학교에 초청해 합



히즈쇼 여름성경학교 <바이블 파티>의 낮 버전 ©히즈쇼



히즈쇼 여름성경학교 <바이블 파티>의 나이트 버전 ©히즈쇼

계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고 히즈쇼는 설명했다.

'바이블 파티'는 주제에 맞게 교회를 화려한 페르시아 왕궁 파티장으로 꾸며 아이들이 파티의 왕자님과 공주님이 된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히즈쇼 여름성경학교는 예배와 공과에 더해 활동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 <클링 켈린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액션, 게임, 키친, 파이널 켈린지를 통해 주제에 맞는 요리, 게임, 물놀이, 시상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나이트 켈린지가 더해져 밤 시간이나 어두운 공간에서 화려하게 펼쳐지는 파티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

여름성경학교를 처음 진행하는 교회를 향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히즈쇼는 "준비와 관리까지 자세히 알려주는 <여름성경학교 스타터팩>을 사용한다면, 간편하고 또 완벽하게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올해도 히즈쇼는 주제에 맞는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다. 재밌는 3D 애니메이션과 톨링켈린지 시연 영상이 <히즈쇼>, <히즈쇼 교역자> 채널에 각각 무료로 오픈될 예정이다. '바이블 파티' 최신 정보는 히즈쇼 홈페이지([https://hisshow.co.kr/addpage/add\\_2014/Bible-Party.html?&menuS2](https://hisshow.co.kr/addpage/add_2014/Bible-Party.html?&menuS2))를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김진영 기자

# 인천시립박물관, 독립운동가 유두환 목사의 생전 일기 기증받아

독립운동가 유두환 선생의 손자가 그의 생전 일기를 인천시립박물관에 기증했다.

인천시립박물관은 지난해에 유두환 선생의 일기를 비롯한 총 296점의 유물을 기증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유두환 선생은 1877년 평안남도 순천군 신창면에서 태어나 1967년 인천에서 사망했다.

그는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이후 동료들과 함께 대한문 앞에서 부당성을 주장하며 목사로 활동했고, 1919년 3월 5일에

는 신창면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후 군자금 모집활동 중에 일본 경찰에 붙잡혀 옥고를 치렀으며, 한국전쟁 때는 인천으로 이주하여 목회 활동을 이어갔다.

유 선생은 1998년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인물이다. 그의 일기는 손자인 유광룡 씨(71)가 기증했다. 유두환 선생의 1966년부터

1967년 1월1일까지의 매일 일기엔 당시의 국제정세와 목회 활동 등이 기록돼 있다. 또한 인천송림국민학교 졸업증서와 앨범을 비롯해 학교 관련 졸업앨범, 상장, 사진 등의 교육사 자료도 함께 기증됐다.



유두환 선생의 1966년도 일기. ©인천시

노형구 기자

# 낮은올타리, 영화 '파묘' 성경적 세계관 특강 개최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 '파묘'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 특강이 낮은올타리에서 열린다.

낮은올타리는 오는 4월 15일, 22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파묘' 관련 온라인 특강을 연다. 이 영화가 기독교인들의 세계

관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성경적 관점에서 분별력을 기르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강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1시, 오후 8시부터 9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대표 신앙인 선교사가 직접 강의한

다. 대상은 주로 학부모와 교사들이지만 중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수강 가능하다.

수강료는 1인당 3만원(대학생 이상)이며, 이번 특강을 통해 영화 '파묘'가 내포한 문제점을 성경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목표다. 이나래 기자

##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간    | CTS 기독교TV  | Good TV  | CGN TV   | CBS TV   | Cchannel   |   |
|-------|--|--|--|--|--|---|
| 오전    | 5:00   | 00 CTS 새벽예배<br>40 힐링송<br>50 신앙예세이  | 40 힐링스토리<br>50 생명양식 - 데일리큐티-   | 00 성경의 삶<br>2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br>30 은누리교회 새벽기도회   | 00 TV강단 강남성결(정인교)<br>30 TV강단 서울은혜(김태규)                     | 40 감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
|       | 6:00   |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이지훈 목사(대구범어교회)<br>30 생명의 말씀-김형준 목사(동안교회)                             |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br>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br>40 GOODTV 오늘의 기도<br>50 GOODTV 뉴스 | 10 [말씀] 유관재 목사(성광교회)<br>50 [말씀] 이재준 목사(은누리교회)  | 00 생명의 양식(사상성결(김형배))<br>30 주만찬<br>50 오늘 만나는 큐티             |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br>40 (오직주님) 명성의 위업                       |
|       | 7:00   | 00 CTS 뉴스<br>20 생명의 말씀-권규 목사(계산제일교회)<br>50 생명의 말씀-김원대 목사(수지기쁨교회)                   | 10 힐링스토리<br>20 말씀의 생터 수원순복음교회 이요한 목사<br>50 비전설교 대한교회 윤영민 목사                  | 30 영적성장의 도구 애니어그램<br>5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 1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br>30 한소망 말씀 (류영모)                      | 4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br>50 노변담화                                 |
|       | 8:00   | 20 신앙예세이<br>30 [워킹온다바이블] 성지탐방<br>50 CTS아침찬양  | 2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br>50 러브미션  |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br>20 [말씀]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  | 20 CBS 성서학당 (김홍규)  | 00 복음강단 - 에베그린교회 김학필 목사<br>30 말씀의 창 - 순복음진주초대교회 이경은 목사      |
|       | 9:00   | 00 다시보는 내가 매일 기쁘게<br>50 Miracle Moment   | 20 마쿠스위업<br>50 힐링송   | 00 [삶&가정] 기어코 성공해 내는 자녀들의 비밀<br>40 Q&A 107 소요리문답<br>50 구약의 세계로 (오십소)?                        | 10 새문개회소서  | 00 우리함께 찬양해<br>40 나의 십자가 :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곁으로                  |
|       | 10:00  | 00 CTS선교방송 아주 특별한 찬양<br>50 7000마라톤 - 예수사랑여기에                                       | 00 말씀의 생터 아델포이교회 임동현 목사<br>30 말씀의 생터 솔로몬교회 홍성의 목사                            | 20 에메이징 그레이스   | 00 잘 믿고 잘 사는 법<br>20 목사님 궁금해요<br>40 CBS뉴스                  | 00 힐링토크 회복<br>50 김윤희 목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
| 11:00 | 50 [생방송] CTS 뉴스  | 00 명사들의 명강<br>30 말씀의 생터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   | 00 [말씀] 윤만선 목사(은혜샘물교회)<br>4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br>50 영적성장의 도구 애니어그램 | 00 울포윈   | 00 소문난 성경교실<br>3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br>50 말씀의 창 - 포항동부교회 김영걸 목사   |   |
| 오후    | 12:00  | 30 생명의 말씀-김종원 목사(경산중앙교회)   | 00 GOODTV 뉴스<br>20 힐링스토리<br>30 말씀의 생터 전주바울교회 신현모 목사                          | 1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br>20 [말씀] 마크 최 목사(뉴저지은누리교회)  | 00 TV강단 오병이어(권영구)<br>30 오직예수                               | 20 복음강단 - 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br>50 우리함께 찬양해                      |
|       | 13:00  | 00 생명의 말씀-김성근 목사(풍성교회)<br>30 신앙예세이<br>40 인생을 바꾸는 7분 - 예수가 길이다<br>50 Miracle Moment | 00 말씀의 생터 예성교회 김기남 목사<br>30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                                    |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br>20 [말씀] 양춘길 목사(필그림성교회)  | 20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3 다니엘 기도회                              | 30 만나 위업  |
|       | 14:00  | 00 [생방송] 콜링갯<br>50 내가 매일 기쁘게   | 0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br>30 문방구  |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br>20 [말씀] 최원준 목사(안양제일교회)  | 00 말씀의 힘 우연동(정준경)<br>30 새문개회소서                             | 3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
|       | 15:00  | 40 7000마라톤 - 예수사랑여기에   | 00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라다꿈   | 00 [말씀] 최경욱 목사(포감사신교회)<br>40 성경의 삶   | 20 영혼의 양식, 송암(김정곤)<br>30 TV강단 성남빌딩 (서혁복)                   | 00 수영로교회 새문개회 NEW WAVE                                      |
|       | 16:00  | 30 생명의 말씀-박노훈 목사(신촌성결교회)   | 00 말씀의 생터 소성교회 강복열 목사<br>30 말씀의 생터 대구동신교회 문대원 목사                             |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영문)<br>20 크리스천의 슬기로운 직장생활<br>40 Q&A 107 소요리문답<br>50 [말씀] 김형익 목사(별살롬교회) | 00 CBS 성서학당 (김기석) 열왕기서 18장<br>50 CBS비전특강 이음 목사의 말씀 맥으로의 초대 | 0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br>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
|       | 17:00  | 00 생명의 말씀-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br>50 빛으로 소금으로   | 00 말씀의 생터 한신교회 강용규 목사<br>30 김대성 목사와 함께하는 기도순례대행전 부흥회                         | 30 [말씀]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 40 CBS 교회소식<br>5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 00 말씀의 창 - 한빛교회 김진오 목사<br>30 말씀의 창 -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     |
| 18:00 | 00 생명의 말씀-김대성 목사(소명중앙교회)<br>30 Miracle Moment<br>40 TV찬양예배 - 만나교회- | 00 비전설교 대전대평교회 한상현 목사<br>25 말씀의 생터 한중사랑교회 서영희 목사<br>50 더 메시지                       | 10 2023 KGMLF<br>50 바울로부터  | 10 더 콜링<br>30 산위의마을 예배 (김영준)   | 2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br>30 말씀의 창 - 엘드림교회 임병재 목사             |   |
| 저녁    | 19:00  | 30 2023 다니엘기도회   | 00 이영훈 목사의 성령님과 함께   | 30 바울로부터   | 20 이 땅을 사랑한 예수의 증인들<br>30 TV강단 두란노(이상문)                    | 2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br>30 말씀의 창 - 엘드림교회 임병재 목사              |
|       | 20:00  | 20 오정현 목사의 비전목상 3분 미라클<br>30 생명의 말씀-장정현 목사(강남중앙교회)                                 | 00 명사들의 명강<br>30 여주봉 목사의 회복과 부흥으로 가는 길                                       | 00 에메이징 그레이스<br>4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 00 성서 700 도시여행<br>40 잘 믿고 잘 사는 법                           | 10 비전메시지 - 기쁨의교회 박진석 목사<br>40 복음강단 - 새문개회 황형택 목사            |
|       | 21:00  | 00 CTS 뉴스<br>40 내가 매일 기쁘게  | 0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br>30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 칼럼<br>40 힐링스토리<br>50 GOODTV 뉴스         | 00 갈보리교회 주일예배  | 00 CBS 성서학당 (김홍규)<br>50 CBS 뉴스                             | 10 나의 십자가<br>30 삶의 씨앗이 되는 소리 Cseed(씨드)                      |
|       | 22:00  | 30 다시보는 내가 매일 기쁘게  | 10 아버지 나의 아버지  | 1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br>20 바울로부터  | 10 하나님을 기쁘게 7004   | 0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br>20 소문난 성경교실<br>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
|       | 23:00  | 20 CTS두란노 성경교실<br>50 신앙예세이   | 10 2023 다니엘기도회   | 00 R.T. 캔달의 말씀과 성령<br>30 성경의 삶<br>5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 10 성경공필 무엇이 궁금하다<br>20 오늘 만나는 큐티<br>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 00 우리함께 찬양해<br>40 리바이츠 위업<br>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
|       | 24:00  | 00 콜링갯<br>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 00 예배실황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  |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br>20 CGNTV 맞춤형강 (4침례) 시즌2   | 00 CBS 아카데미 쇼<br>50 살롱 쉼표                                  | 00 마음으로 말해요 공감창고<br>5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                      |
|       | 1:00   | 00 감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음성'<br>30 최일도 목사의 인생사건관   | 00 일대일 양육모임<br>30 스카트브러너 목사의 십자가의 영광   | 00 [말씀] 김운성 목사(영락교회)<br>40 [말씀] 도지원 목사(예수비전교회)   | 00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3 다니엘 기도회<br>40 말씀의 능력(전태식)            | 00 말씀의 창 - 하나교회 이학권 목사                                      |
|       | 2:00   | 20 힐링스토리<br>30 CTS찬양의 찬양   | 00 명설교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br>30 명사들의 명강   | 20 [말씀] 이주연 목사(산미루교회)  | 30 TV강단 용인신성(이대희)  | 00 말씀의 창 - 퀸즈로교회 김성국 목사<br>40 감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
| 3:00  | 00 7000마라톤 예수사랑여기에<br>50 리바이츠 헤리티지                                 | 00 GOODTV 특별간증   | 00 [Global Sermon] R.T. Kendall's Word & Spirit<br>3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 00 울포윈   | 00 (오직주님) 명성의 위업   |   |
| 4:00  |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박종순 목사<br>20 오늘의 양식<br>30 TV새벽예배 일산광림교회              |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br>3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영안장로교회 양병희 목사<br>55 365 새벽기도 생방송 1부                 | 10 [말씀] 황성은 목사(창동영광교회)   | 00 CBS 성서학당 (조성욱)<br>50 CBS 교회소식   | 00 우리함께 찬양해<br>4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br>50 힐링토크 회복              |   |





해외송금도

자산관리도

월급통장도

# 하나 뿐인 내 편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홍보물은 2025년 03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광고-02911호(2024.04.15)  
/ CC브랜드 240411-0134